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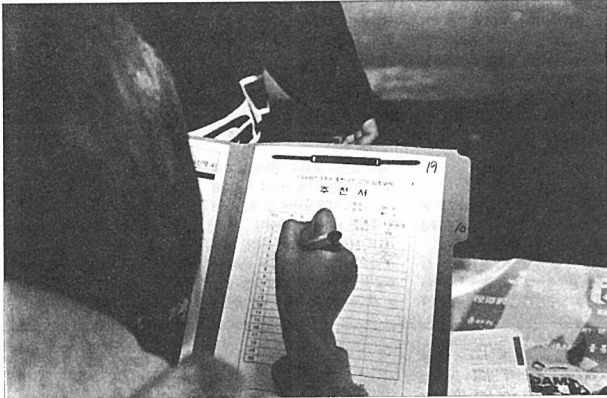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8년 11월 16일 (월) 제726호 창간 18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권 주간 고영훈 편집장 박윤경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외)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166 FAX 961-4183 (홍인) 0338-30-412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성리 산 89

양배움터 선거분위기 점차 고조

이번주부터 각 단대·총학 본격 선거운동 시작



선거일이다. 후보들의 추천서를 받으러 다니는 선거운동원들과 김의실 등 학교 곳곳에서 유세를 하는 후보들의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는 하지만, 애연의 활기는 느끼기 어렵다. '자발적 참여로 비본 조인속에서 내년 학생회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서울배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승훈(상경·경영 4)은의 말처럼 선거와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임승희 기자

양 배움터 총학생회가 지난주 후보등록을 마치고 이번주부터 선거유세에 들어가는 등 선거분위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서울배움터 33대 총학생회 선거는 총 재직 6514명 중 1451명의 추천을 받은 이현수(사회·신방 4)·이상진(사양·불어 4)조가 단독 입후보할 수년만에 처음으로 단독선거로 치러지게 됐다.

승리의 감동, 이제 새천년을 향한 무한전투라는 기치를 내걸고 선거운동에 돌입할 단독 후보측은 7000 학생의 단결된 힘이 학원자주화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21세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단결된 힘을 사기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 언론협의회(의정 허문숙, 동양·아랍어 4)는 오는 20일(금) 정전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인협의 정전토론회는 한국대학 중 최초로 시작된 것이다.

한편, 각 단과대도 선거준비에 한창이다. 서대, 동대, 사회대, 사법대, 법대 등이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 서·동대의 사법대를 제외하고는 단일후보 가능성이 높은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아리연합회는 몇몇이 후보에 출마할 자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양어대-추정길(사번어 3)·이태규(영어 2), 구교환(이태리어 4), 윤창호(이태리어 2) △동양어대-윤석진(중국어 3), 권영순(인도어 2) △사회

△강수신(사·영어 87) △류순주(법·법학 78) △김효식(법·법학 90) △김종호(사양·영어 88) △김현호(법·법학 91) △최은정(법·법학 92) △최한신(법·법학 90) △이기형(법·법학 92) △정종화(법·법학 85) △정성근(사회·정의 83) △이정주(법·법학 86) △김병현(법학대학원) △김용현(법학대학원)

명재권 기자



너희가 전쟁을 아느냐

▲'공습으로 죽은 얼마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죽음을 피해야 하는 사람들, 온몸이 공중분해돼 무덤조차 만들어 주지 못한 시체들의 더미, 시체, 시체, 끊임없는 시체들의 행렬과 이렇지 않고 파괴당한 삶의 타진.' 대부분의 소설에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면 그것은 전쟁이다. 더구나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이라면, 그런데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중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있던 시절에 우리는 어쩌면 그 '전쟁'을 경험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전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93년 초에서 94년 중반이었다. 언론은 북한이 곧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남침도 멀지 않았으니 아서 불리한 핵 재처리 시설이라고 '후정' 되는 영변지하시설은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당시 청소년이던 우리는 물렸다. 북한이 개발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핵에너지였으며 서방 기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대북 기술 금수 조치로 의존할 수도 없지만) 원자료를 개발하더라도 플루토늄 추출을 개발하게 했다는 것을, '플루토늄 추출=핵무기 개발' 등식은 미국의 억압일 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2~3년 내로 핵무기를 개발, 태평양 지역에 큰 위협요인으로 부상했을 때 다칠 제안보다 지금 일어나야 할 일을 겪는 것이 낫다.' 94년 캐리 미 국방장관의 이 말은 길으므로 언론공중제일 한 때였다고도 있지만 현실을 볼 때 '재앙'의 피해자는 남북한 민중들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백악관이 전쟁상황을 중심으로 최고고료회의를 열고 있는 동안 주한 외국인은 철수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쟁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던 한반도 상황은 미국 자체 정보 수집에 따라 '미국도 베트남전에서 받은 피해의 수십배는 감내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매우 전향적인 94년 '제네바 핵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북한은 핵합의를 체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받고 무역제재조치를 해제하며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측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재나 핵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0일(화) 언론 회사를 들먹이며 또다시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간 중유지원도, 무역제재조치 해제도 전혀 지킨 바 없으며 천문학적 숫자의 경수로 건설비용은 대부분을 남침에 부담시키고 있다. 남한이 부담기로 한 경수로 건설 비용은 하루에 약 15억씩 날마다 10년을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남한의 경제위기에 걸린 상황에서 비용을 재공할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인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약속한 바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에너지난으로 하루가 급한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핵에너지 개발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며 그렇다. 미국이 이를 용인할 것도 아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 제네바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도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윤정

사법시험 2차합격자 15명으로 사상최대

예년보다 3배 넘어 ... 학교 노력으로 이뤄진 것 아닌 듯

우리학교 역사상 최다인 15명(대학원생 2명 포함)이 사법시험 2차에 합격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7일(토)자로 발표된 40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에 따라 알려진 것으로 올해 합격한 인원은 지난해의 4명에 비해 3배가 넘는 숫자이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전국대학 중 상위 6~7위 정도의 합격자 수이며 우리학교의 경우 96년에 1명, 97년에는 6명뿐이었다. 사법시험은 3차까지 치르게 돼 있으나 3차 탈락자는 없으므로 2차 합격이 최종합격인 셈이다. 이번에 합격한 강수신(사양·영어

87)씨는 "나름 대학 학생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공부하느라 외로웠는데 동문들이 대거 합격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후배들도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사법고시인 지도교수인 변해철(법학과)교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규모로 합격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앞으로 좀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합격자 명단이다. △정영기(법·법학 85) △김의실(동양·타키어 79)

△강수신(사·영어 87) △류순주(법·법학 78) △김효식(법·법학 90) △김종호(사양·영어 88) △김현호(법·법학 91) △최은정(법·법학 92) △최한신(법·법학 90) △이기형(법·법학 92) △정종화(법·법학 85) △정성근(사회·정의 83) △이정주(법·법학 86) △김병현(법학대학원) △김용현(법학대학원)

명재권 기자

지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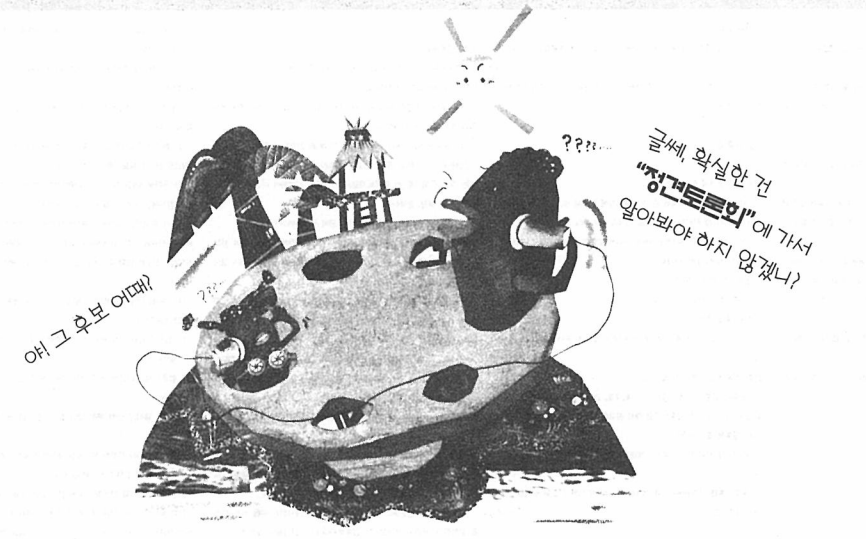
- ▶**3면** '문화, 자본의 그늘 속이야기' 7면
- ▶**4면** 우리 애들 잘 가르치려고 든 할머니, 이것들이 술 먹는데 다 써버려야... "죽어본다" 6면
- ▶**5면** 인권전쟁, 그 깊은 그늘 속이야기 6면
- ▶**6면** 김관조선과 조진일씨의 최정집 죽이기로 다시 시작된 한 교원노조 조합회가 노사경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이제 국회 국정청 논쟁, 그 정쟁을 하나씩 파헤친다. 혹시 외대학보도 사법검정 받지는 않을까? 7면
- ▶**7면** '문화, 자본의 그늘 속이야기' 7면
- ▶**8면** 일본대중문화, 남한 문화, 정무는 국내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하면 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 ▶**9면** 전교조 10년만에 합법화 된다 9면
- ▶**10면** 교원노조 조합회가 노사경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이제 국회 국정청 논쟁, 그 정쟁을 하나씩 파헤친다. 혹시 외대학보도 사법검정 받지는 않을까? 7면

비로잡음사

지난주 75호 면 그려보는 '외대인의 말 권리 보호'가 42%로, 통틀어 74%가 30%로 비로잡음사입니다.

외대학보

인론협의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기획광고



그렇습니다!

내년 의대를 함께 책임질 총학생회장단 제대로 알아보고 뽑아야 합니다. 정전토론회, 후보들의 정책·공약들, 품품이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서울배움터**
일시 : 11월 20일(금요일)
- **용인배움터**
일시 : 11월 19일(목요일)

주관 : 10대 행정인론협의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설

무늬만 변한 '사립학교법개정'

문제되는 부분 달라진 것 없어

우리 나라 사립대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각인되어 있다. 지난 학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학비리 관련 사건만 하더라도 단국대, 서울대, 한국대, 덕성여대, 광주여대, 한라대 등 상당수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사립대학에서 비리가 저질러지는 우리 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인지 이미 밝혀졌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학의 부패, 비리 문제로 부정을 전개하는 대학에서는 항상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구호가 빠짐없이 나온다. 이는 그만큼 '사립학교법'이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최근 교육부는 그동안 심하게 발생한 사립대학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사립학교법 중 개정방안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발표하였다. 이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마자 조상일교섭을 비롯한 언론사들은 이번 개정으로까지 사립대학의 부패, 부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립학교법에서 큰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개정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입법예고라는 가슴 속에 있는데 상처만 갈무리만 치료하려 했다는 얘기다.

대학이사회 자살단체가 발족한 후유증이 수놓을 하고 있는 사립대학에게는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립대학에게는 해법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열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립대학이 설립된 총 친족임원의 정수를 5분의 20에서 3분의 1 이내로 조정 △교원 임용을 계약제에 전환 △수입요 및 기타 납입금에 관한 권리와 회계회계에 속하는 수업을 대하여는 임용직위와 무관하게 등을 개정하면 과연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교원을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은 계약 만료 이후 역시 재단이사회의 마음에 안들면 해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임으로, 이전의 법안보다 정월 가능성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현재의 법안은 먼저 재단과 대학 운영에 이사장과 그 친·인척들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이사장 친인척은 충성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선형제이며,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총장 선출도 대학 구성원에게 넘겨져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 임명권은 총장에 주어지도록 한다.

또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교수회의와 학생회 그리고 직원노조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여 학교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교수·학생·직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내각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립학교법에 명시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립대학의 부패·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듯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비리와 전횡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교육개방 시대에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이다.

홍익대학교 (Hongi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대학 운영위원회

홍익대

홍익대 운영위원회

1.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2.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3.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4.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5.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6.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7.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8.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9.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10. 홍익대 운영위원회 구성

홍익의 소리

교수정제 심의과정 명확히 공개해야

철학과 학생들은 부패 비리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7일 교원장계위원회에서 내리진 중징계 처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총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이렇게 주장한다.

먼저 박정근 선생님은 지난 1학기에 있었던 교육부 재단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원장계 위원회는 이차분을 훨씬 넘어 넘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철학과 학생들은 여러 경로로 정제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납득하고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외대 뉴스 7호'를 통해 추상적인 사유 설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결코 객관적이요 명확한 증거나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학교 측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볼 때 오직 이론 학생들의 의견만이 마치 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입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충실한 의뢰의 동등한 한 주제로 양 관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세 번째로 11월 10학자의 '외대학보'에 실린 기사의 머릿글을 보면 "인간적 정분 떠나 비리 사실 바로 봐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론 총학생회장의 말인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철학과와 임장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적적 정분을 떠나 사실 자체를 바로 봐야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발 방지의 대승적 차원이라는 명목에서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어야 하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수 학생들의 단순한 관행의 외침인지...

이상의 얘기가 철학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구악일소라는 대의명분에 동의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대세의 흐름에서 서를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또 다시 다른 구악을 낳는 것은 아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정학(박정근) 선생님 복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문·철학 3) 정제교수 구제운동

반대한다

우리 외대는 지난 1학기 내내 학내 재단사태로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외대의 문제를 일소하고자 학생들과 학부모, 교수들이 일어나 결국 외대학원의 주범 박승준임과 그 무리들이 징계처분당하고 외대를 떠나게 됐다.

학내 구성원들은 총학생회가 단행하며, 중간고사도 마무르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휴학을 진행했다. 따라서 재단사태가 아니라 박승준 임과 그 무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결과가 초를 치는 사립대는 누구인가? 자신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특목 전문상을 요하는 학문의 결과물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실 바나기도 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피해-유감

그러면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외대교수 정제

교수정제 심의과정 명확히 공개해야

철학과 학생들은 부패 비리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7일 교원장계위원회에서 내리진 중징계 처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총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이렇게 주장한다.

먼저 박정근 선생님은 지난 1학기에 있었던 교육부 재단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원장계 위원회는 이차분을 훨씬 넘어 넘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철학과 학생들은 여러 경로로 정제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납득하고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외대 뉴스 7호'를 통해 추상적인 사유 설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결코 객관적이요 명확한 증거나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학교 측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볼 때 오직 이론 학생들의 의견만이 마치 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입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충실한 의뢰의 동등한 한 주제로 양 관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세 번째로 11월 10학자의 '외대학보'에 실린 기사의 머릿글을 보면 "인간적 정분 떠나 비리 사실 바로 봐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론 총학생회장의 말인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철학과와 임장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적적 정분을 떠나 사실 자체를 바로 봐야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발 방지의 대승적 차원이라는 명목에서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어야 하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수 학생들의 단순한 관행의 외침인지...

이상의 얘기가 철학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구악일소라는 대의명분에 동의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대세의 흐름에서 서를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또 다시 다른 구악을 낳는 것은 아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정학(박정근) 선생님 복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문·철학 3) 정제교수 구제운동

반대한다

우리 외대는 지난 1학기 내내 학내 재단사태로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외대의 문제를 일소하고자 학생들과 학부모, 교수들이 일어나 결국 외대학원의 주범 박승준임과 그 무리들이 징계처분당하고 외대를 떠나게 됐다.

학내 구성원들은 총학생회가 단행하며, 중간고사도 마무르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휴학을 진행했다. 따라서 재단사태가 아니라 박승준 임과 그 무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결과가 초를 치는 사립대는 누구인가? 자신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특목 전문상을 요하는 학문의 결과물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실 바나기도 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피해-유감

그러면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외대교수 정제

교수정제 심의과정 명확히 공개해야

철학과 학생들은 부패 비리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7일 교원장계위원회에서 내리진 중징계 처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총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이렇게 주장한다.

먼저 박정근 선생님은 지난 1학기에 있었던 교육부 재단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원장계 위원회는 이차분을 훨씬 넘어 넘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철학과 학생들은 여러 경로로 정제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납득하고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외대 뉴스 7호'를 통해 추상적인 사유 설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결코 객관적이요 명확한 증거나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학교 측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볼 때 오직 이론 학생들의 의견만이 마치 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입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충실한 의뢰의 동등한 한 주제로 양 관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세 번째로 11월 10학자의 '외대학보'에 실린 기사의 머릿글을 보면 "인간적 정분 떠나 비리 사실 바로 봐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론 총학생회장의 말인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철학과와 임장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적적 정분을 떠나 사실 자체를 바로 봐야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발 방지의 대승적 차원이라는 명목에서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어야 하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수 학생들의 단순한 관행의 외침인지...

이상의 얘기가 철학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구악일소라는 대의명분에 동의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대세의 흐름에서 서를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또 다시 다른 구악을 낳는 것은 아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정학(박정근) 선생님 복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문·철학 3) 정제교수 구제운동

반대한다

우리 외대는 지난 1학기 내내 학내 재단사태로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외대의 문제를 일소하고자 학생들과 학부모, 교수들이 일어나 결국 외대학원의 주범 박승준임과 그 무리들이 징계처분당하고 외대를 떠나게 됐다.

학내 구성원들은 총학생회가 단행하며, 중간고사도 마무르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휴학을 진행했다. 따라서 재단사태가 아니라 박승준 임과 그 무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결과가 초를 치는 사립대는 누구인가? 자신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특목 전문상을 요하는 학문의 결과물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실 바나기도 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피해-유감

그러면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외대교수 정제

교수정제 심의과정 명확히 공개해야

철학과 학생들은 부패 비리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7일 교원장계위원회에서 내리진 중징계 처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총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이렇게 주장한다.

먼저 박정근 선생님은 지난 1학기에 있었던 교육부 재단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원장계 위원회는 이차분을 훨씬 넘어 넘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철학과 학생들은 여러 경로로 정제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납득하고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외대 뉴스 7호'를 통해 추상적인 사유 설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결코 객관적이요 명확한 증거나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학교 측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볼 때 오직 이론 학생들의 의견만이 마치 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입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충실한 의뢰의 동등한 한 주제로 양 관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세 번째로 11월 10학자의 '외대학보'에 실린 기사의 머릿글을 보면 "인간적 정분 떠나 비리 사실 바로 봐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론 총학생회장의 말인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철학과와 임장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적적 정분을 떠나 사실 자체를 바로 봐야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발 방지의 대승적 차원이라는 명목에서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어야 하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수 학생들의 단순한 관행의 외침인지...

이상의 얘기가 철학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구악일소라는 대의명분에 동의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대세의 흐름에서 서를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또 다시 다른 구악을 낳는 것은 아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정학(박정근) 선생님 복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문·철학 3) 정제교수 구제운동

반대한다

우리 외대는 지난 1학기 내내 학내 재단사태로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외대의 문제를 일소하고자 학생들과 학부모, 교수들이 일어나 결국 외대학원의 주범 박승준임과 그 무리들이 징계처분당하고 외대를 떠나게 됐다.

학내 구성원들은 총학생회가 단행하며, 중간고사도 마무르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휴학을 진행했다. 따라서 재단사태가 아니라 박승준 임과 그 무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결과가 초를 치는 사립대는 누구인가? 자신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특목 전문상을 요하는 학문의 결과물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실 바나기도 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피해-유감

그러면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외대교수 정제

교수정제 심의과정 명확히 공개해야

철학과 학생들은 부패 비리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월 27일 교원장계위원회에서 내리진 중징계 처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총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이렇게 주장한다.

먼저 박정근 선생님은 지난 1학기에 있었던 교육부 재단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원장계 위원회는 이차분을 훨씬 넘어 넘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철학과 학생들은 여러 경로로 정제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납득하고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외대 뉴스 7호'를 통해 추상적인 사유 설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결코 객관적이요 명확한 증거나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학교 측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볼 때 오직 이론 학생들의 의견만이 마치 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입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충실한 의뢰의 동등한 한 주제로 양 관점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세 번째로 11월 10학자의 '외대학보'에 실린 기사의 머릿글을 보면 "인간적 정분 떠나 비리 사실 바로 봐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론 총학생회장의 말인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다.

철학과와 임장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적적 정분을 떠나 사실 자체를 바로 봐야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발 방지의 대승적 차원이라는 명목에서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어야 하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소수의 인원이 무시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수 학생들의 단순한 관행의 외침인지...

이상의 얘기가 철학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구악일소라는 대의명분에 동의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대세의 흐름에서 서를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또 다시 다른 구악을 낳는 것은 아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순정학(박정근) 선생님 복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인문·철학 3) 정제교수 구제운동

반대한다

우리 외대는 지난 1학기 내내 학내 재단사태로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외대의 문제를 일소하고자 학생들과 학부모, 교수들이 일어나 결국 외대학원의 주범 박승준임과 그 무리들이 징계처분당하고 외대를 떠나게 됐다.

학내 구성원들은 총학생회가 단행하며, 중간고사도 마무르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휴학을 진행했다. 따라서 재단사태가 아니라 박승준 임과 그 무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결과가 초를 치는 사립대는 누구인가? 자신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특목 전문상을 요하는 학문의 결과물을 지도하는 교수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실 바나기도 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피해-유감

그러면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그러나 우리도 유감

용인배움터 학생회선거시행세칙

- 1장 총칙**
 1. 목적: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 선거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하고 정당한 선거를 관리함을 물론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의 범위: 본 세칙은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선거의 범위: 본 세칙은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장 선거관리위원회**
 1. 목적: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4장 선거시기와 방법**
 1. 목적: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5장 선거결과**
 1. 목적: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6장 선거비용**
 1. 목적: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선거권: 본 세칙은 배움터 용인배움터(이하 용인배움터)의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권위와 신뢰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팍스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팍스아메리카나가 몰락하고 있다 3-세계대공황이 오고있다

세계자본 위기의 씨앗, 뿌린만큼 거둔다

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는 1200만 주식이 거래되었다. 아침부터 매물은 감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가격은 수직으로 하락하고 시세속박기는 떨어지는 기세를 모두 통보할 수 없었다. 거래소 바깥 윌 스트리트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리를 가득채웠다. 소 요시대를 대비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날 이후 주가 하락은 3년 3달동안이나 계속되었다. 11명의 유명한 '큰 손'들이 자살하는 것을 필두로, 1933년까지 8천개의 은행이 파산하고 많은 자본가들이 파멸을 맞았다. 미국 전체 고용생산의 50% 이상이 감소하였고, 미국 전체 노동자의 30%가 일자리를 잃었다.

아무도 수습할 수 없었던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과잉이었던 '세계대공황'이었다.

2차 세계대공황이 오고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는 지난 1930년대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1930년대의 위기는 산업자본의 '과잉생산'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핵심요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산업자본의 '과잉생산' 위기에다 금융자본의 '과잉유동성 위기'까지 복합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심각한 과잉생산 위기에 직면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잉여가치에 대한 끝없는 추구가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시장경쟁이라는 강제 때문에 생산은 끝없이 확대된다. 그러나 소비는 자본이 끝없는 이윤추구와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비 절감전략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압박함으로써 제한된다.

과잉과잉생산은 생산은 끝없이 확대되는데 소비는 좁은 한계 속에서 제한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유한 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거기에 수십조 달러 규모로 거대화되어 있는 국제투기자본이 불을 당기고 있다. 거대화되어 있는 투기자본은 사실 전반적인 과잉생산으로 "수익성"이 생산이나 유통부문에 투자하지 못한 회계자본이기 때문에, 그 역시 전반적인 과잉생산의 결과로서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경제의 위기가 왜 '외환 위기'의 형태로 폭발하고 있는가?

1990년대 들어 발전이 종식되고 개발도상국과 신흥제국권국의 자본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권력이동'이 범지구적 규모에서 완성되었다.

그 결과 모든 권력은 뉴욕 월가의 금융자본에 집중되었고, 이들은 더욱 높은 수익을 겨냥해 신흥시장을 치고 빠지는 투기행사를 계속하였다.

금융부문의 움직임은 실물부문의 달리 원래 많은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금융시장은 세계적으로 고도로 통합되어 있어서 (매우 개방되어 있고,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국적이 대규모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실물부

적으로 발달된 연관성이 없는 지역들 사이에도 위기가 곧바로 전염된다.

화폐자본으로서의 금융시장 붕괴(금융공황)의 위험이 높아지면 하루빨리 자본을 회수 또는 철수하여 현금을 건지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 때 당연히 일차적으로는 주식보다는 안정된 이자가 보장되는 국공채, 그리고 약소국의 통화보다는 통화기치의 안정이 보장되는 경화(달러)로 몰려들게 된다. 이미 그러한 움직임은 세계적 범위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추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있다.

몇몇 나라들에서 연쇄적으로 금융시장의 붕괴가 일어나고 이것이 3세계 국가들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불황과 같은 실물부문의 위기와 결부될 경우, 세계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와 미국패권

조반니 아리아(Giovanni Arrighi)는 미국 헤게모니(팍스아메리카나)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제공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자본주의국가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평화정착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제 3세계 국가들이 해외에서 자본주의 열강들의 경제적 이익을 국유화하는 것을 막는 '제국주의적 보상'을 통해 자본의 초국적 팽창에 따른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법적 장치를 제공했다.

셋째, 미국 패권은 유럽열강들의 구식민지체제의 해체를 주도함으로써, 자본이 세계의 주변부에 영토적 팽창에 의한 독점적 특권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 입장에 바탕해 초국적 팽창을 할 수 있게 했다.

넷째, 달러-금태환제(gold-dollar standard)를 통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본수출의 계획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달러-금태환제는 각국의 회계를 달러로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주변부에 대한 자본투자에서 산출된 이윤을 신속하게 달러로 환원시키는 등 자본의 세계적 흐름을 크게 촉진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열강들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다국적기업들을 통한 다른 나라들로의 자본의 직접수출이라는 성격을 띠었다.

20세기 초반 자본주의 열강들의 관계가 무정부상태와 전쟁으로 치달았던 경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다국적 자본주의'는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헤게모니(팍스아메리카나) 하에서 자본주의 열강간의 위계적 질서와 평화가 확립되어 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다국적 자본주의는 '비공식 제국주의'의 발전을 의미했다. 자본이 초국적 차원을 획득함으로써 미국 헤게모니 질서는 근본적으로 '국제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국의 제국적 질서의 확립과 재생산은 미국이 경제적인 지배 메커니즘에 바탕한 비공식 제국주의를 행사하고 심지어 이를 다른 중심국가들과 공유하는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조건들을 창조하는 바탕이었다. 이러한 국제주의는 곧 중심국가들이 주변부와 반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공식적' 지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세계대공황과 미국

아마타 이사오(山下秀男)는 '아시아 통화위기의 진실'이라는 글에서 97년부터 98년에 걸쳐 아시아를 습격한 일련의 통화위기도 그 근본적 원인을 따고 파악해보면, '과잉 달러'에 기인하고 따라서 통화 조건의 진원지는 타이도, 홍콩도, 일본도 아닌 바로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달러는 그 60%를 미국 국외에서 보유하고 있다. 80년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 세계의 공적준비에서 절반의 달러의 비율이 낮아지고, 미르크와 연의 비율이 상승했는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달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달러는 기동성과 화폐로서의 지위를 이전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대신한 통화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달러는 과잉통화로서의 지위를 더욱도 강화하고 있다고 까지 볼 수 있다.

아시아에서 폭발한 과잉생산 공황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과잉생산공황은 아시아와 관계가 깊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습격하여 이 분야의 기업은 일제히 업적 하와에 휘말려 있다. 인텔이나 IBM, 컴팩,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명성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요의 감퇴를 반영하여 감익결산 혹은 업적 전망의 하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원래 홍콩의 주가폭락이 뉴욕시장에 파급되었을 때, 맨 앞서 판매된 것은 정보통신 관련 주주다. 태국의 통화위기가나 홍콩의 주가폭락은 그에 선행하는 정보통신, 기전, 자동차 등의 분야의 과잉생산 공황의 발현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은 태국 아닌 ASEAN과 아시아 NIES국가들 자신이고, 부품생산과 조립공장을 아시아에 두고 있는 일본과 미국이었다. 최근 NEC, 후지쯔, 히타치, 후지엔기 등 일본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는 감익결산의 전망과 신규 설비투자의 중지자 처벌로 말미암았으며, 미국경제의 정세는 영향을 전이해 온 한미교역업의 급추의 동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러의 패권은 결코 안정적이지도 않고도 없었다. 그것은 언제나 얽은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대단히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서립되어 있다. 경쟁수세의 적자 형태로 마이너스 해외로 방류되는 달러가 미국의 재무부 증권(국채)에 투입하는 형태로 미국으로 환류되는 구조적 기법



해지펀드는 연초 보편 우국주의 투기로 집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미국정부와는 어떤 뒷거래가 있다. 사진은 국제적 투기꾼이라고 규정된 세계금융계의 '큰손' 조지 로렌스 워싱턴과 워싱턴과 김대중 대통령

어디에서 단련된다면 예컨대 자국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에의 보유유기 이를 대량으로 매각하는 경우, 미국 경제는 갑자기 폭락 못하게 된다.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작용은 헤아릴 수 없다.

미국에 대량으로 매각된 경우, 금리가 급등하고, 계속해서 사상 유례없는 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일타가 붕괴된다. 97년 6월에 열린 덴버 정상회담에서의 하기도 루터로 일본총리는 기자회견 전 상에서, 미일 자동차 부품교섭에서 이른바 수취목적 실정을 둘러싸고 미기 컨테이너상대표와 충돌했던 95년 당시를 회고하면서, 미국 경제를 매각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다. 아시아의 통화위기는 충분히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 부패되고 외화 부족에 빠진 것은 자본시장이든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작용은 헤아릴 수 없다.

미국에 대량으로 매각된 경우, 금리가 급등하고, 계속해서 사상 유례없는 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일타가 붕괴된다. 97년 6월에 열린 덴버 정상회담에서의 하기도 루터로 일본총리는 기자회견 전 상에서, 미일 자동차 부품교섭에서 이른바 수취목적 실정을 둘러싸고 미기 컨테이너상대표와 충돌했던 95년 당시를 회고하면서, 미국 경제를 매각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다. 아시아의 통화위기는 충분히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사태의 중대함을 안아내고 아시아에서 폭발한 과잉생산공황을 다음과 같이 막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 첫째는 IMF의 지원책을 지렛대 하여 과잉생산의 철저한 파괴를 추진하는 것이다. 원래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생산은 미일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에 무정부적으로 투자를 집중한 결과에 비롯된 것이다. IMF가 지원의 대가로서 제시한 조건은 한마디로, 이들 국가들이 인고 있는 과잉생산의 파괴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결국 제국주의는 과잉생산공황을 아시아 역내에 한정시키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IMF가 태국이나 한국,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받아들여야 할 응징조건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완전자유화, 대외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대타기관인 IMF는 금융 지원을 자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을 지배할 교두보를 쌓으려 하고 있다.

세계대공황의 가능성 여부는 제3세계 나라들에서 외환, 금융시장 붕괴를 동반하는 대공황이 올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자본주의 강제국들의 금융시장이 금융공황을 맞이할 정도가 되려면 제3세계가 심각한 불황이나 공황에 빠지고 이것이 부패되어 되고 초국적 자본이 공황을 대거 최후까지 못하거나 직접 투자한 기업에서 대거 파탄을 보는 등 피해가 꽤 때 그런 사태가 도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 안에서 자본이 노자관계를 개선하고 분배를 개선한다면 공황이 피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범위에서 대공황이 올 것인지 아닌지는 자본주의 강제국과 인공국들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결론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열강들이지만, 그 중심의 대타기관인 IMF는 금융 지원을 자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을 지배할 교두보를 쌓으려 하고 있다.

1. 들어가서 글
2. 들어가서 글
3. 들어가서 글
4. 들어가서 글
5. 들어가서 글
6. 들어가서 글

● 제5회 POSCO 철강논문상 현상공모

21C 철강산업을 밝혀줄 무한에너지를 찾습니다

논문주제
이데 옴모본(중 1번)에 대해, 논문주제는 옴모주제 자유 선정

● 21세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예) - 21세기 대비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일에 대비한 철강산업의 과제

● 철강기술 개발
예) - 철강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 연속주조공정에서 강도의 고온 특성 연구

● 새로운 철강소재 활용
예) - 철강 강성소재(알루미늄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철강재 확대 방안
- 강재이용 신기술(스틸하우스, 금속구 등)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방안

● 철강에너지 개선
예) - 소비자들의 의식구조 변동을 통해 철강산업의 이미지 제고 방안
- 철의 우수성 및 유용성에 대한 효과적 홍보 방안

● 환경보존을 위한 철강산업의 과제
예) - 국제 환경규제(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철강산업의 대응 전략
- 철강산업의 청정기술(Cleaner Technology) 개발 전략

시상내역
- 최우수상 : 1인 (상징 및 부상 1000만원)
- 우수상 : 1인 (상징 및 부상 500만원)
- 장려상 : 2인 (상징 및 부상 300만원)
- 입선상 : 3인 (상징 및 부상 100만원)
※ 논문영양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응모요령
- 응모자격 : 국내외 4차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전공불문)
- 논문분량 : A4 용지 20매 내외, W/P작성 (논문 분량은 3~4매 범위)
- 제출기간 : 1999년 2월 26일까지
- 제출물 : 논문 및 논문요약본, 재학생증서,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 내외)
- 제출처 : (135-7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92 포스코센터, 포항제철 인력팀
- 제출방법 : 우편접수 (직접접수 가능)
- 기타 : 응모작품은 상작물로서 사생활 지킬 것이요 함
인선논문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음
기타사항은 포항제철 인력팀으로 문의바람 (☎ 02-3457-1600)

철강으로 내리사랑
포항제철

심층 취재 - 신규동아리 인준문제

“더이상 유명 단체이고 싶지 않다”

10년째 인준 실패... 기존 동아리 열린 시각 필요



과연 올해는 정식 동아리 인준 받을까? 시종은 공연하는 '외인부대'의 모습이다.

“10년째 도전해 올레도 실패했지만 내년에 더 노력해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용인배움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 자리. 기독교 동아리 CBA는 10년째 인준에 실패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서울배움터에도 있다. 락음악 동아리 '외인부대'는 20년간 활동했는데도 아직 정식 동아리 인준을 받지 못했다. 신규동아리 인준은 한 학기 한번, 과반수 이

상의 대표자가 참석한 전동대회에서 열렸다. 서울은 1/2 이상 찬성하면 기독교 동아리가 되고 다음학기 전동대회 때 2/3 찬성시 정식 동아리가 된다. 용인은 반대로 2/3 찬성시 기독교 동아리, 다음학기 1/2 찬성시 정식 동아리가 된다. 기독교 시기를 한 학기 두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동아리의 활동을 살펴보고 정식 동아리로 인준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결국 정식 동아리 인준받기 상

당히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들이 인준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일단 인준을 받으면 동아리명과 교비가 지급돼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동아리명이 없어 전대방에서 연습 하는데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해서 연습도 맘대로 못한다. 공연 때는 언제나 시비로 증명한다. 이번 공연엔 포스터 찍을 돈도 없어 대동재 때 때 남은 포스터 뒤에 페인트칠을 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 팀만 있고 단체가 없는 유령단체도 다름없다.” 외인부대 회장 권준환(중앙·중국어 2)은 하소연은 처절(?)하기까지하다. “이들이 인준을 못 받는 이유는 CBA의 경우, △이리 7개 기독교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 보다는 합치는 게 낫다 △기독교 동아리들은 두드러지는 활동이 없는 것 같다 등의 이유로 인준을 거절당했다. 이에 CBA 활동 중인 권순원(동주·유교 4)은, “영어 동아리인 TIME, ALAD 각각 특장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동아리도 성격 확립하기, 전동 중 심화하는 등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며 각자의 활동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또, 두드러지는 활동이 없는 특성상 찬양, 전동 등 잘 드러나지 않는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그 밖에도 신규 동아리의 인준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많다. 공간과 예산 문제. 작년엔 인준 받은 서울배움터의 '할터' '손소리' 등은 동아리방이 없어 떠도는 형편이다. 용인배움터도 아직 2개 방이 남아 있으나 인실 할 수는 없는 상태다. 새로운 동아리 인준시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의결하는 때는 반드시 학원형 절차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대학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동원 회의를 보면, “동아리는 건전한 대학문화, 민주주의문화 건설에 기여하는 목표와 이상을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건전한 대학문화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데서 꽃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양하기를 관성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기존 동아리들의 태도가 필요하다. “인준과정에서 각 동아리 홍보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세 동아리가 들어오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던 ‘출발’은 김홍철(신규인준동아리)의 박스, 자연·물리 4)은 말처럼 기존 동아리의 열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간과 예산문제에 있어 학교측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신규 동아리 인준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는 또다른 요인이 공간·예산문제가 때문이다. 정서호 기자

생활 시평

KBS, 상술인가 통일노력인가?

요즘 KBS 방송에는 북한 영화 걸작집 '김격정'이 방영되고 있다. 박초홍명예의 위작 정선을 잘 싣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김격정'은 북한영화들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두 손 두 발에 묶여야 할 KBS의 '김격정' 방영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든다. 80년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생겨난 '북한정보'라는 문동' 차원으로 당시 전국 각 배움터에서 전개된 북한영화 상영, 뒤따른 정부당국의 학교차단, 수배, 구속, 더욱더 KBS를 비롯한 제도인물들의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라는 빨간색 덧칠하기가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통일을 열망하는 대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조차 '이적'으로 몰아세우기를 주도하던 KBS가 이런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이 남북 화해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김격정'을 방영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KBS는 순수한 의도로 이를 방영하는 것인가.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김격정'의 가격은

2억이며 최근 북한영화들에 대한 각 방송사들의 과열경쟁으로 관련 분쟁이 생기고 극영화의 경우 5만 달러 미만의 관련료가 3~4배 이상 치솟고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은 KBS를 비롯한 각 방송사의 북한영화 상영이 현재 남북 화해와 교류 분위기를 틈탄 '시정'을 올리기가 아닌 기간 추적을 남기고 있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정정보로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라면 영화상영과 함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소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불행이 영화 한 편을 배우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은 북한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얻지 못했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사들의 북한영화상영은 '함간'의 호 효과를 높인다. 이는 북한문화 이해에 기여하기 보다는 도리어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우영(인종특동일련연구위원회)의 주장(민족애수 11월호)과 같은 맥락이다. '최희정' 특이 남북문화교류를 통해 상영되는 북한영화가 '호기심 충족' '시정'을 올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바란다. 문화부

클럽 - 월간 '작은 책'을 찾아

노동하는 삶 그 자체가 문학

일터의 정서 표현, 투박·거칠지만 역동성 느껴져

“노동문학이요? 우리들은 문학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은 지식인들이 모두 알았기 때문이죠. 문학은 이미 오래전에 상층계층 제 기능을 상실했어요” 노동문학이란 단어를 거부하고, 심지어 '생활'이란 말도 꺼리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 언어로 직접 쓴 글로 채워지는 책이 바로 월간 '작은 책'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 노동의 삶을 다루거나, 일을 통한 삶을 찾기를 돕는다. 이런 현실에 '작은 책'은 거친 일터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몇 안되는 글모음집으로 손꼽힌다. '작은 책'의 편집인 일을 하고 있는 김순우씨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그들의 삶을 표현해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삶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밝힌 이유를 설명한다. 이 글모음집은 '예술훈' 이름으로 2개월간 세련된 기교나 꾸밈, 관념적인 이야기

와는 거리가 멀다. 생선장원 일터의 정서와 삶을 위한 투쟁, 노동자들의 분노·생각이 투박하지만 진한 감동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부도료 사장이 도망간 회사의 노동자들이 “작은 책”의 특징은 한마디로 ‘쉽다’는 것이다. 자신의 노동 경험이 바로 드러나는 글이기 때문이다. 다시 그 회사를 세우기 위해 주식을 산 이야기, 살인 고문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철거민 노동자 이야기, 노동자들이 겪은 광주항쟁 이야기, 민중가요가 좋아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야기, 정리해내고 나서 민주노조를 만든 노동자 이야기 담겨져 있다. 아나 그 안에서 벌어지고,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듯 노동

자들의 가슴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사연들이 소개된다. “작은 책”의 특징은 한마디로 ‘쉽다’는 것이다. 거기가 보여지는 ‘노동’은 바로 자신의 노동 경험과 더불어 일하기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장순우씨는 “읽어오는 많은 글 중 선택하는 기준은 읽어서 이해하기 쉬운 글, 감동 받는 글이 기준으로 뽑는다”고 말한다. 현실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와 삶의 의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진정한 노동자의 벗이 되어, 투박하는 사람들이 대담한 사회 분위기를 조화하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자 뜻이다. 노동자의 삶은 그 자체가 문학이며 노동자들의 건강함과 심리적 건강함이 드러나는 문학 중의 문학이다. 전문 글쟁이처럼 세련되지 않고, 투박하고 거칠지만 그들의 문학에는 삶이 담겨있고, 현장 실감이 느껴질 것 같은 글을 느낄 수 있다. (편집실 02-323-5391) 전대기원 문화학과 공동기자단

너비아너 <I4>멕시코인의 종교와 의식구조 II

기적의 수호신 과달루페

인구의 구성으로 볼 때 멕시코는 백인과 혼혈인 메스티소, 그리고 원주민 인디오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다양한 민족집단이 서로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마리아로 이런 상이한 민족적 정체성의 표출을 꾀사화하고 또 통일한 멕시코인이라는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최고의 상징이 되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그녀는 독립전쟁이나 멕시코 혁명 등 국가적 위기나 변혁의 고비마다 멕시코의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그 힘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멕시코 국민적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인디오 세계가 죽었던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은 다른 어떤 크리오로 계급의 지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달루페 성모가 그들과 비슷한 길목의 얼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녀가 출현한 곳에 그들이 애절에 승화된 대지모신 토란천의 성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멕시코의 독특한 종교의 혼합주의(syncretism)를 알게 된다. 동시에 과달루페가 그녀만이 지닌 기적의 힘으로 모든 멕시코인들을 불러들이는 사실을 통해 또 그들게도 멕시코인들이 과달루페에 열광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매년 12월 12일이 되면 멕시코 북부 과달루페 성당은 멕시코 각지에서 흘러드는 순례객들로 붐빈다. 사람들은 이날을 맞아 이 자제로운 어머니, 성스러운 수호신을 향해, 꽃과 촛불 그리고 헌한 헌의 춤을 통해 그들의 헌애는 사랑을 표현한다. 서성일 (서비아너과 강사)

16일(목) 17일(금) 18일(토) 19일(일) 20일(월) 21일(화)

시흥, 그집은 30주년 기념 전시회 - 미래세대 전시실, 타이거와 예술제

종교와 학술제 - 교수원 1층 소극장, 인문학의 미래, 강연회, 전시회, 순명사원의 발원지, 재래시장, 농민 530, 임박기다 공연, 재래시장, 농민 6시

동아리대 북동제

구분	학 생			대 학 일 생		
	요일	이름	점심A	저녁	백반	일품요리
월 (16일)	체육복 (W1,000)	육계장 (W1,500)	폴오징어채 (W1,300)	간세우미국 (W2,000)	김치볶음밥 (W2,400)	
수 (17일)	동원간식 (W1,400)	캐러미 (W1,300)	탕수육달걀 (W1,500)	콩나물만두국 (W2,000)	애호박만두국 (W2,500)	
목 (18일)	소고기국밥 (W1,500)	김치비빔밥 (W1,400)	순두부국 (W1,400)	호박김밥 (W2,000)	달걀밥 (W2,100)	
금 (19일)	콩나물국밥 (W1,400)	애호박만두국 (W1,300)	닭가슴살 (W1,400)	두부김치국 (W2,000)	사골우거지국밥 (W2,500)	
토 (20일)	오징어볶음 (W1,400)	사골우거지국밥 (W1,400)	대구탕 (W1,400)	무우어묵국 (W2,000)	비빔국수 (W2,000)	

구분	후 복 관					
	요일	조·중식	석식	탕류	볶음류	달걀/양식
월 (16일)	색이새국 (W1,400)	오징어나무국 (W1,400)	장국밥 (W1,800)	말안치볶음밥 (W1,400)	햄치킨사이드 (W2,000)	
화 (17일)	참치김치국 (W1,400)	콩나물국 (W1,400)	조개탕수육 (W1,800)	외교가채볶음밥 (W1,500)	체육복볶음밥 (W1,500)	
수 (18일)	외교가어묵국 (W1,400)	순두부국 (W1,400)	생강탕 (W1,800)	계피식볶음밥 (W1,400)	황태(민초)사이드 (W2,000)	
목 (19일)	양꼬치만두국 (W1,400)	이따나미국 (W1,400)	닭가슴살 (W1,800)	외교가김치볶음밥 (W1,500)	콩나물국 (W1,500)	
금 (20일)	한미교주탕 (W1,400)	외교가국 (W1,400)	홍합탕 (W1,800)	팬아채볶음밥 (W1,400)	치킨가스 (W2,000)	

문화, 자본의 그늘을 벗어나라



< > 일본문화 개방이 두려운 이유, 문화개방 아닌 문화산업개발이다

일본문화개방이 시작됐다. 언론과 관련분야 종사자들은 난리가 났다. 벌써부터 기업체들은 개방 이후 자 기운을 챙기기 위해 준비작업을 할기 나려다 보며, 문화개방자들은 다 가를 일본문화, 민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두렵게 대책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의 대책을 촉구하지만 전혀 '준비 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흔한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할 것인가. 일본문화개방 에 대한 겁박보다는 좀 더 근원적 인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일본문화의 개방을 넘어 문 화산업시대의 문화교류의 개방문제 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편집자

- 1. 문화산업이라는 허구성
- 2. 일본문화개방이 두려운 이유
- 3. 마인-프랑스에서 배운다
- 4. 대안-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문화의 보호와 발전에 대하여

일본시장 진출이랑 '달콤함'에 취한 개방, 그러나 한국은 없다

이전되어 고유의 문화는 파괴되고 나아가 다 른 문화로 동화되어 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한다. 결국 제일 희소성이 약화되면서 보편적 서브컬처가 제공되는 것지만 보이지만 동시에 정보집권은 따른 정보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염두에두는 사실과, 문화 정책적 상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이 매체환경 변화의 문화적 함의이다. 이런 매체환경 변화의 경제 적이며 문화적 함의를 고려할 때, 불행히도 한국은 '영상보상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진 해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일본 대 중문화 개방이라는 현안이 맞닥뜨리게 되었 다.

"인기가 만들고 메이저가 배급한다"

세계 50대 시청각기업이 올라는 매출액중 30% 가까이 차지할 정도의 산업기반을 가진 일본영상산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인기가 만들고 메이저가 배급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인 영화역사가 끊임없이 배출될 수 있는 유인 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 만큼 인력충이 풍부하다. 아울러, 방송사의 역할도 주목할 사항인데 이들은 편성-제작의 분리라 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영화제작 을 지원하고 있다. 메이저가 확보하고 있는 전국적인 영화관망은 미국영화의 힘을 약화시 킵 수 있는 점이다. 1997년에 제작된 일본영 화는 278편(이중에서 전문 상영관을 상영영 화가 112편)이고 외화는 33편이 상영되었다. 60편이 안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400편 가가 운 외화가 들어오는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상 황이다. 당연히 일본영화의 시장점유율은 41.5%(한국영화 25.9%)나 된다. 100년 이상 예술과 산업적 측면이 결합된 독자적인 영화 역사를 유지하는 일본영화의 단점과 역설의 불리한 여정을 거치는 한국영화 보다 여러 면 에서 앞서 있음을 분명하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아시아 지역 바깥 사람들의 눈에는 일 본과 중국의 영화만이 존재할 뿐이다. 일본의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확보가 하드웨 어 분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관념을 갖고 큰 그림 그리기를 했다. '세상 끝까지 빌 밴더스', '필모부 북' '피터 그리너비' 등에 대한 제작지원을 통해 HDTV 기술을 선보이 게 한 '소니'(SONY)와 같이 관객들은 개방이

전에 이미 일본 영상산업의 영향권 안에서 의 국영화로 감상해왔고, 그만큼 일본의 산업전 력이 앞서 있다는 의미이다.

일본문화 개방과 우리의 책적

개방의 효과를 예측하면서 흔히 한일간의 합작을 통해 일본의 영화시장을 공략할 수 있 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빙'의 공동제작 개 획을 검토해 보자. 이 영화는 일본의 APF와 한국의 50대 50로 제작비를 낸다. 이 투 자회사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제작비 14억원의 반이던 7억원, 찬사하면 7천만엔이 다. 여기서 영화권 상영 권리 비로 비디오투 출시되는 일본 AV(오리지널 비디오투)의 평균 제작비가 5천만엔이 8천만엔이라는 사실을 주 목하자. 이유는 분명하다. 비디오투 출시와 일본 대 방송 관련으로도 투자액의 회수가 가능 하므로 제작단계에서부터 한국영화에 참여해 서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참하면 한 국과 아시아 흥행에 따른 이윤도 쟁기고. 이 대목에서 개방과 관련한 상상경제연구소의 안 이한 예측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 지만 국내시장을 내주더라도 한국(2,100억 원 안팎) 보다 시장규모가 훨씬 큰 일본시장(작 가년 1,772억 원)을 조금만 차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순진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일본은 한국영화 의 일본 진출을 막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가 일본영화를 받는다고 해서 그대로 호혜원칙을 들이면서 한국영화를 사줄 리는 없다. 다음으 로 일본이 주도하는 공동제작을 통해 만든 영 화의 유통에서 얻어지는 대부분의 수익은 일 본 쪽 차지가 된다. 더구나 이미 세계 무대에 알려진 일본 영화감독들의 작품에 한국의 투 자자들이 제작비를 대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 다는 점을 고려하자. 일본 돈으로 제작이 확 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벗어났더라도 우리 제작자들의 배려는 작자라고 말할 수 있다.

"크기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관점 특히 영상 콘텐츠역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양성'은 '높은 질'과 함께 영상개 방이 표방하는 공식성의 핵심 개념이다. 영상



위의 이미지가 하야오 감독 '원형공주' 아래의 이야기 순지 감독의 '시월이야기'

콘텐츠역사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다양성은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필요에 다양한 사회에 서, 특히 대안적인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인 경쟁력으로 제시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개념이다. 다양성을 설 정하는 입장은 또 다양한 사상에 접근할 수 록 사회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실'에 근거 한 입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상에 기초 한 것이다. 다양성은 질 및 범위의 관련성이 ① 내용의 다양성(어건, 담판, 쟁점, 가치 등 의 다양성) ② 유형과 형태의 다양성 ③ 양식

의 다양성 ④ 수용자의 다양성 ⑤ 절적인 다양성 등 몇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개 방으로 인해 외국의 영상물과 무제한의 경쟁 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규모의 경제'를 택한 침하는 조건인 국내시장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영상 콘텐츠역사를 살리는 길은 규모의 논리 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크기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김혜준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위원 / 부소장)

공영언어 - 용인 FBS 방송제

일석삼조(一石三鳥)

일 석세백 FBS방송제가 지난 11일(수) 자 연대 강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달 라진 '광고 문화' '영상 문화' '한국영화 개연기' 3가지 주제를 다뤘다. "가게가 있 지만 잘 안있었다는 생활 속 문화들을 같이 보고 싶었다" 언중자 흥행속(서하·불 이 2)이 밝히는 주제 선정의 이유다. 첫 순서 '21세기 문화'라는 광고' 에 서는 TV광고에서 푸른 커피, 길거리 행사, 인 터넷 등으로 광고의 중심이 옮겨가는 세태 를 심층적으로, 상세하게 할 수 있는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광고형태도 변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어 진행한 '영상 엑스 파일'(X-FILE)은 광고 왕선에 대한 공중감을 취 제, 보도하는 시간이었다. "공공에서 어른까지든 몇 km일까" 가 장 학생 비율이 높은과는 또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실명, 취재한 결과 공문에서 어른까지든 1.85km,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불이로 나타났다. '영상 엑스 파일' 시간에는 직접 학생인터뷰를 녹화, 상영해 현장감을 높였다. 마지막 순서인 '한국영화개연기' 에서는 한국영화 발전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이어졌다. 폐지는 난이로 하고 있는 '스크린 파워제거'에 대해 여러 영화 인의 인터뷰를 상영, 관객의 이해를 도왔다. 성공한 한국영화로 꼽히는 '여고괴담' '침 속'의 영상상을 끝으로 방송하는 내력을 다. 실무자들 남영희(성대, 예체계측 2)은, "이내문서자(실명)는 방식이었는데 관객들이 같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지 못 한 점이 아쉽다" 또 소감을 밝혔다. 정서용 기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외대연극회 '서툰사람들'

겨울 문턱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서툰'

해마다 이 계절 많은 연극 동아리들이 공 연을 올린다. 그 주제는 '대학생 - 지식인' 이라는 명제 아래에서 언제나 시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혹은 '미국(외국)인' 것들 이었다. 외대연극회도 주제를 벗어나는 어느 연극 동아리 따지 못해 진지한 쪽을 고수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 때는 관객들에게 부담 스럽기도 하고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평 을 듣기도 했으며 내부적으로도 역할 부족 의 의혹이 간간히 떠올기도 했다. 이번에도 열매는 공문은 성격이 조금은 다 르다. 요즘 유행하게 가장 각광받는 장르 중 하나인 '로맨틱 코미디' 라는 기조로 작품을 선정·준비했다. 제목은 '서툰 사 람들'이며 작가는 최근 영화 '기묘한 사내 들'로 데뷔해 호평을 받은 장진석이였다.



최해원 (동양·일본어과)

도 정극배와 유화이가 소박한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표현한다는 것의 의미 혹은 사랑을 기쁘게 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서툰 사람들 - 서툰 도둑, 서툰에 서툰 자, 서툰 살리러던, 피어난 서툰 도둑, 서툰 자살 기도자, 서툰 아버지 등으로 명명된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서툰지만 그 서툰 함의이 아니라 아름다움에서 오는 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치고 나른한 삶이던 열매의 삶이건다는 의미. 1991(목)부터 21일(토)까지 대강당에서 무 대에 올리며, 목·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4시·7시 공연한다.

우리말 슬쩍쓰기

(26) 밥 먹고 삽시다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우리가 먹는 밥 은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 먹자'고 하는 말과 함께 '식사하 다' 라는 말도 쓸 줄은 습니다. 이어 조금 '고상'하거나 '풍류' 있는 곳에 먹는다고 하면 '밥먹자'나 '아침 / 점심 / 저녁 먹자' 같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보려면 연속극에선 거의 모두 '식사 하다'라고 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흔해서 '밥먹자'와 '밥을 먹 는다면' '밥 먹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손맛사람이나 어버이 밥을 먹다보면 '아침/점심/저녁'을 쓰거나 '중 지'를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쌀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을 미국 자유시 장 경제 논리와 함께 밀려 모두 내렸습니다. 우리 먹을거 리를 나타내는 말마저 내줄 수 없습니다. 모두 내주 건 도 슬쩍도 없는 사람이 되어도 좋겠습니까. 최홍규 (서양·네덜란드)

문화 단신

가 놓이려는 이유로 괴로워하다 결국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내용이다. 또 둘째 공연은 '별', '제이' 생겼어요' 등 대중가요가 대부분으로 모두 주목을 끌었다. 회장 박종욱(자 연·미술평 2)은, "수화로 장애인 사랑을 표현하는 동아리단체 이번 행사에 장애인 학생들을 초청할 예정이다"라 말했다. 한편 경기도, 국민대 수화 동아리에서 찬조 출연할 예정이다. **외비기대 연주회 거제** 통기타 동아리 '외비기대'가 다음 번째 정 기공연으로 오는 20일(금) 늦은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거제시 연수관에서 '외비기대'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나뭇잎 사이로' '우울한 편 지' 등의 공연이 포함되어 이 거제에 '거주 안' 이다. 비에서와 산' 등 창작곡도 연주될 다. **연출자 최일호(자연·환경 3)은, "IM, 대 량실시체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이번 주제를 잡았 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역통기타 노래연습회를 '일린 로제'가 찬조 출연한다. **하얀공간 전시회 열려** 순수 미술 동아리 '하얀공간'이 지난 9일 (월)부터 13일(금)까지 일주일간 서른 다섯 번째 전시회를 열었다. 학생회와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유화, 수채화, 데생, 조소 등 모두 3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다. 그 중, 세의 마음을 폭포로 표현한 '세의 방방', 역동적인 필의 모습을 그린 '별'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행사 준비한 최원석(자연·통계 3)은, "이마주어적 열정을 가지고 참신한 시각으로 그려려고 노력했다"고 전시회 의의를 밝혔다.** **서울** **그림존 30주년 기념전시회 마련** 미술동아리 '그림존'이 3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갖는다. 오는(16일)부터 20일(금)까지 일주일 간 마네르파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 는 연평(자연·서양화 2)의 '장강의 풍경'을 비롯하여 '일주일 체나' '꽃' '여자' '지화 상' 등의 유화, 수채화, 판화가 선보인다. 또 한 무렵학과 남용태 교수의 '초원' '에이프 리드' '꽃'과 '분나'를 주제로 한 목공예와 김광오 교수의 '고향마을' '오늘의 정서'도 함께 전시된다. **회장 최원석(서양·불어 2)은 "교미지급 이 늦게 돼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그림존 30주년'이라는 특별한 사 람을 마련하여 전시실 문을 지키는 학생들에게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어과 '그루터기' 공연 개최** 일본어과 민중가요 노래제 '그루터기' 일곱 번째 정기공연이 지난 13일(금) 대학원 소강 당(603호)에서 있었다. '동지'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연은 개인주요가 만든 한 친구기를 비판하며 친구나 동지간에 자신의 모습을 진 실되게 드러내 함께 살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공연에서는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노 래단 '좋은 친구들'의 '지금부터야' 인정한제 너를 사랑한 이유' 류규민의 '그대 가는 거 야' 노태미의 '남편, 한 번 더 하자' 등이 곡이 선보였다. **회장 최소영(자연)은 "배움에서 민중가요 는 더 이상 활발하게 불리워지지 않지만 이번 공연과 같은 노력을 통해 민중가요가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해갈' 전시회 열려** 만화동아리 '해갈'이 전시회를 개최했다. 비 내림과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이 울리지는 자들'(김현수 화) '모노리'(최대 진·이지원 화) '파랑'(박진성 화) 등의 단편 만화가 선보여 많은 학생들의 박수를 받습 니다. **회장 박성진(사회 1)은 "해갈 회원들은 프로그 이나 이미지로 작가능력이 있다. 그만큼 기 존의 만화에서 시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노 려를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 다.**

◆ 종신(경북대), 불심검문 손해배상 청구 승소

경북대에 재학중인 김중신(법학 90)군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했다. 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변호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김중신군이 처음이다. 김중신군은 지난해 5월 서울 고시원에서 책을 사러 갔다가 서울특별시 경찰들에게 불심검문을 받고 노랑경찰사에서 18시간 동안 강제구금되었다. 김중신군은 손해배상청구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중신군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

“우리 대학(경북대)에서 집회가 있을 때면 정문이나 복문 등에서 경찰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이때 경찰들은 검문을 하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신분증 요구를 강요하며, 학생들을 경찰들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대부분 귀찮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찰들이 검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행위인 정당한 권리가 있다.” 김중신군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어서 그런지 공판력에 의해 재판되는 법원에 대해 당당하게 말했다.

“ 불심검문 항의는 우리의 당당한 권리죠

김중신군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일반학생도 서류양식에 맞춰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작년 12월 민간인인 불심검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 승소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중신군은 불심검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에 대해 단순히 응대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심검문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경북대)에서도 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라며 언급했다. “법원에 갈 때는 합당한 대의단체로 대변인들이 검문을 하던 도중 자신들을 목격할 수 있고 여학생들에게 심회판을 줬다는 이유로 대규모 방검찰청에 배상금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라며 우리도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중신군은 “위법한 불심검문에 항의하다가 경찰서로 연행되어도 절대 진술서를 쓰면 안 되고 변호사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는 정당방위권 성립된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대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국민의 정부, 계속되는 ‘마녀사냥’

서청협, 민애청 회원 9명 연행, 3명 구속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 전성총 의장을 비롯한 서청협 신하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소속 회원 9명이 지난 11월 3일(화) 연행, 그 중 3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 민애청 회원들이 항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서울시장 소속 형사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고수 찬양 등에 관한 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민애청과 서청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서청협 전성총 의장과 한애청 민애청 회장을 비롯한 9명의 회원들 연행, 그 중 전성총 서청협 의장 등 3명을 구속했다. 민애청은 8일 연행과 이후 당시 김대중을 비판

적으로 지지하며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조직되었다. 90년 소모임체제로 되었고 직장 청년들의 취미, 기호를 살려 건강한 민족문화 향유를 고민하며 민주화·통일 활동을 해 온 청년대중단체이다. 경찰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촛대있게 자기 삶을 개척해간다는 ‘민애청 제일주의 정신’과 민애청 규약인 ‘자유·민주·통일’을 북한의 검열과 연결시켜 ‘이적단체 찬양 고무 및 이적 표현 제작·배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길표(민애청 96.7 회장)는 “민애청의 활동방향이 기록공공의 이익에 걸림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경찰측의 억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9명의 회원들 체포·연행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6명의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사실만으로도 경찰측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번 사건을 조작하려는지 알 수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가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기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찰청장의 기만유지를 위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한재까지 노래, 풍물보임을 비롯한 글, 시, 풍물, 사진모임 등 각 소모임에서 공동체문화와 나누면서 민

주화활동·통일운동에 결합해 온 민애청을 ‘이적단체화’ 하려는 것은 이들 단체 내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록공공을 위협하는 ‘민주화·통일’이라는 서청협 활동을 금지시키고 운동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보안법, 독재정권의 최대 희생자인 김대중 정부에 이러한 침해는 있을바반박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한계에 보수세력들과의 합관계가 태어난 현실의 모습이지만 냉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라며 기록공공을 침해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홍길표씨는 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통일의 당사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으로 남북합의와 정전 해지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준이 없고 법 자체가 애매해서 당기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다. 정부나 기업의 고위층에게도 똑같은 것이 왜 우리에게는 위법한 것이 되느냐”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통일 운동에 앞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토론했다. 이들은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노력에는 범법이 없다. 그리고 부당하게 구속된 회원의 석방을 위해 대우하고, 서청협 등의 청년단체가 대중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법원에 규정한 기본권까지 빼앗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1일(토) 우리 학교 서울대법원 학생식당에서 ‘민애청 구속자 석방을 위한 하루투쟁’을 열 계획이다. 사회부

◆ 애청 사건 관련 연행됐던 홍길표씨를 만나

이번 민애청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연행되었던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홍길표(민애청 96.7 회장)씨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연행 혐의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 7조 1, 3, 5항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 표현을 배포) 위반 혐의이다. 청년회에서 발행한 회지와 신인회원 가입자료에 실린 내용들이 북의 어투와 비슷하다는 이유라고 한다. 또한 ‘자유·민주·통일’이라는 민애청 규약 3조 목적이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의 혁명과 비소, 민애청 제일주의 정신도 북한의 이념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북한의 주장과 일치시켰다.

조사·연행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없었는가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미란다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강제연행했다. 수사방법이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그대로 베끼기를 강요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확한 방법·공정한 유법 등 사회적 분위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더 이상 실 수 없이는 기록공공의 성취라고 생각한다. 학생운동에 비롯한 민주애국세력 단합의 하나이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도주연행’의 위험이 없다면 명분으로 현재 풀려나긴 했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한 것일 뿐 원천적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 부당하게 구속된 9인의 석방을 위해 계속 항의농성하며 타 단체와도 연계할 생각이다. 사회부

조선일보와 국보법은 공생관계

최정집 교수 논문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마녀사냥식 사설 공세를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월간조선’이 대통령직과 문정택기회위원장 최정집(고려대) 교수에 대한 ‘사상검정’ 공세를 취하자 한국정치학회, 비평가 연문·사회·학술단체들이 성명과 토론, 항의의뢰 등을 통해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반격에 나섰다.

월간조선 11월호는 ‘최정집의 총력적 한국정권’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직문정택기회위원장 최정집 교수의 총력적 6·25전쟁 연구” “제2군주 추진과 더불어 주목되는 최정집의 한국현대사 시각” 등의 표현을 쓰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위원장 이강원)은 지난 10월 28일 성명에서 “조선일보사기는 논문의 뒷까지 낱말과 문장을 짜집기하여 최교수를 의도적으로 풍문화자로 몰고 있다”라며 “민주헌정을 악용한 극우 냉전논리의 상징적 안보사업주의에 기초한 유포자극을 중단하고 7천만 겨레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일 ‘최정집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

선일보의 보도태도’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에서도 “조선일보의 최정집 사상검정”은 “민주주의의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며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대국민 사과, 최교수에 대한 공개사과, 기자들의 자정운동을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서 이종우(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의 최정집 죽이기는 학문·사상과 언론에 대한 사상검정과 탄압이라는 분단체 구습의 충실한 계승”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의 본질은 최 교수의 논문(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을 오해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대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수구세력이 한국정부를 탈냉전 평화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도전을 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쁜 광천체, 남북대결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의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집권세력이 만약 최 교수를 회생안으로 하여 보수화세력과 적당히 타협을 시도한다면 이는 개혁의 정밀을 심히 어렵게 하는 우매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문제가 된 최 교수에 대한 보도가 ‘언론

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삼만 비와 같이 한법에 보장된 학문·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인본의 ‘언론 자유론’을 허구라고 지적한다. 조선일보는 탈냉전시대 인권의 비로 보고 최정집 교수 태도를 충실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가 정권의 자문기관인 최정집 교수에게서 반민주적 ‘마녀사냥’의 칼날을 의미하며 ‘안보사업주의’를 구가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권고체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총체적 민주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조선일보의 안보사업주의를 관망할 수 없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한양상 부총리, 김장남 수석 등 ‘개혁인사’들이 폐지까지 된 것처럼 앞으로는 제2, 3의 최정집 교수 마녀사냥의 말이 수백에 없을 것이다.

제도인본의 최정집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은 한법에 보장된 학문·사상·양심·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짓밟아온 독재정치의 유신이다. 이제 이 독재정치의 낡은 쇠사슬을 청산해야 한다. 그것은 일제 잔재



이명 목재 망명인 반민주·반통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총력적’ 등 불행한 사건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인 학자의 학문연구를 자유·국권의 이념으로 재단하는 반문화적 지적 풍토는 극복되어야 한다. 민족 양심세력은 이번 사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법에 명시된 민권이 보장되는 밝은 문명사회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박해전
(민권연대위원장)
* 민권선론 ‘영입’할 수 없는 나라 3선에 실린 글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합니다
화학산업과 전자산업을
세계최고로 키우겠습니다

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화학산업을 일으키고 전자산업을 개척한 LG.
이제 LG는 50여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우리나라 화학산업과 전자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 화학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화학·에너지 분야**
 - 국내 최대규모의 기술수출로 입증된 신기술
퀴놀론계 항생제의 세계최초 개발 및 기술수출로 입증된
LG의 첨단기술력은 신소재, 고분자, 광화학, 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의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장유에서부터 가공까지 국내 최초로 이룩한 일관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정밀화학, 산업전체 정보, 전자소재,
생활용품, 약품 등 화학산업의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 첨단기술력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전자·정보통신·반도체 분야**
 - 세계최고의 초고속 액티브(D)램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TFT LCD 기술,
디지털TV 핵심기술 확보, 이동통신사업을 선도한 CDMA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 등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도 LG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 반도체 분야에서 입증된 세계적인 경쟁력
고속16nm 반도체 생산량에서 시장점유율 35%로 세계시장을 석권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통신장비, 자동차시선, 기계, 고해상도TV,
차세대 컴퓨터 등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서 LG는 세계의 남다른
경쟁하고 있습니다.



원노조 합법화의 의미와 과제

10년만에 뚨 ‘빨간 딱지’

국회 통과 앞두고 반발 우려... 입법취지 살려야



박기홍 기자

전교조가 합법화를 위한 큰 산을 또 하나 넘겼다.

지난 달 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본회의를 열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와 두 차례의 정회를 거치면서 교원노조(전교조) 합법화를 도출해냈다. 이로써 지난 89년 결성된 이후 10년동안 법외단체로 활동해 왔던 전교조가 국회에서의 법 통과 절차를 남겨두기는 했으나 사실상 합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10년간의 ‘합법화 투쟁’ 끝에 그 결실을 보

게 된 전교조는 이제 그 활동이 합법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의 개혁 움직임에 일보전진을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 전문직 단체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교직원총연맹(한국교총)은 교육정책에 있어 법적인 협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관련 중심적인 구시대 교육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써 교원정책, 교육정책 등을 교섭·협의할 수 있게 되었고

때문에 인사중심의 교육 개혁, 사교육 중심 교육 타파, 관료 중심 교육행정 개선,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 등의 과제를 현장에 있는 교원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교원노조를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하여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게됨으로써 노동운동 진영이 운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생산직, 사무직문직 노동운동을 활성화시켜 민주노총의 결성에 큰 몫을 담당했고, 민주직무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운동진영의 사화·경제적 지위 격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동계의 운동 영역이 교육개혁 운동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노동운동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게 남아있다. 가장 선결된 과제는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이루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총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데다가 한나라당, 자민련 소속의 국회의원 중에는 여전히 교원노조(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화는 원대교

허더라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합의안이 변질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전교조측의 분석이다. 이에 전교조측은 상충교섭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교원 10대 요구안을 마련, 서명운동을 펼쳐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노동 2권(단체행동권 제외)만 보장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경우 단위 학교의 실정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립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립 단위 학교의 교섭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전교조로서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정책위원회의 홍진관씨는 “전교조 조직력의 강화로 활동의 범위와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앞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는 이러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토)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교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특별법(교원노동조합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원노동조합법안은 오는 17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경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 환경노동위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종교간 전교조 정책위원회를 만나

“교사, 개혁 대상 아닌 주체”

지난 달 31일 노사정위원회의 교원노조 합법화 협의안 도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결성 10년만에 합법단체로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보는 전교조 정책위원 출신들을 만나 전교조 합법화가 갖는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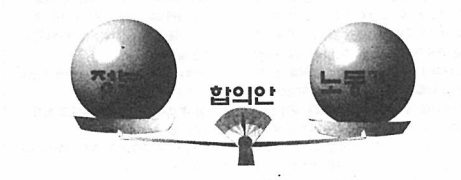
알리오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합법화가 갖는 의의는
정권유지수단으로 타락한 교육현실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취지로 지난 89년 결성된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적 교육을 위해 10년동안 ‘참교육 실현’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노력은 비합법 단체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왜곡되고 탄압받았다. 이제 합법공진에서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교섭과 협의를 통해 교육현장의 교육개혁운동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참교육 실현의 결실임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의 역할은
이번 합법화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 임팩트를 가했다. 교사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서야 한다. 전교조 합법화로 인해 교육개혁정책에 대해 교육계와 협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개혁의 방향타를 움직여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노동운동진영의 단체로서, 사회개혁운동으로서의 교육개혁운동을 실현하고 사회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전교조가 해야 할 몫이다.

합법화 이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교조의 조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간 외부의 압력과 탄압 때문에 전교조에서 활동하지 못한 많은 교사들을 묶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당국과의 협상, 협의의 활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진보적이거나 현실기능한 교육정책을 생산, 올바른 교육개혁 실현에 앞장서는 전교조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부



쟁점별로 살펴본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정부는 “명분” 노동계는 “실리”

입법형식(계)
합의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장
노동계: 노동법 개정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주장을 마지막까지 펼치기 했던 사안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법에 관련된 법안을 담을 경우 예외나 단서 조항이 너무 많아 노동법이 누락되기 될 것이고, 이럴 경우 국회 본회의는 물론 법제처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마지막 협상에서 정부는 특별법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을 따르며 예외는 것이고, 노동조합법에 근거할 뿐 아니라 단서나 예외조항을 제외한 다른 법 적용은 노동법에 따른다는 것을 제시해 노동계가 이를 수용했다. 따라서 제정된 법률의 명칭은 ‘교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특별법’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법 내용은 노동법 제5조에 근거한 별도의 법률이라는 점과 법안 외에 다른 법 조항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분명히 담기게 된다.

노동기법권 보장 범위
합의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쟁의조정권) 인정
예초 정부는 교섭권을 인정하되 체결권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체결권 인정은 교섭권은 법적 효력도 발휘하지 못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체결권까지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풀었다. 이로써 내년 7월 이후 전교조는 법원, 예산, 조세 등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

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나 사학 재단과 교섭을 벌일 수 있으며, 정부나 사학 재단은 체결된 단체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된다.

교섭구조 (사립 학교 단위교섭권 부여 여부)
합의안: 국·공립의 경우 전국적 교섭은 교육부 장관, 광역 시·도 단위의 교섭은 교육감과 교섭하고, 사립은 사용자가 연합하여 교섭
이번 합의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자 이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다. 학교단위의 교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협회 편차 크고 실질적인 권한의 대부분이 단위 학교 법인이 갖고 있는 등 중립학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교섭구조와 고용·피고용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사학 법인은 교섭을 포함하여 교사는 물론 서무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게 인사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처럼 학교운영이나 교사의 인사·신분상 문제의 핵심이 풀리고 있는 단위 학교이며, 교사와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의 일원이 단서 학교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교 단위 교섭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도 단위 및 중앙 단위 교섭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갖게 된다. 이 문제는 교원노조 법제화 이후 교원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어느 것보다도 앞서 풀어야 할 과제라 더욱더 절박하다.

	전교조	정부	합의안
입법형식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법 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노동기법권 보장 범위	교섭권과 체결권까지 보장	체결권 없이 교섭권만 인정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쟁의조정권) 인정
사립학교 단위 교섭권 부여 여부	사립학교 단위 교섭권 부여	국·공·사립 불문 단위교 차원으로 교섭할 수 없다	국·공·사립 불문 단위교 차원으로 교섭할 수 없다
단체 교섭 사항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	전교조 안에서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금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사항으로 명문화 할 것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사항으로 명문화 할 것

어렸던 전국적인 교섭은 전교조 본부와 교육부 또는 연맹인 사용자 단체와, 시·도 단위는 교섭은 지부와 교육감 또는 연맹인 시·도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 단위는 본회의조는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별로 노사합의를 구성하거나 기타 노사합의에 준하는 기구를 만들어 교섭이 아닌 협의는 가능하다.

단체교섭사항(내용)
합의안: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의 가장 큰 성과가 있던

다만 비로 이 부분이다. 처음 정부는 위와 같은 합의안에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금 및 교육행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 사항으로 명문화 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위 사항으로 할 경우 근무조건과 관련된 것은 교육정책 관련 사항 등도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섭사항이 지나치게 좁혀지므로 협상에 맡겨두자고 주장해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정부를 이를 수용, 교섭 제외 사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무조건 외에도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교육진반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의 대 학 술 상 문 학 상 공 문

튼튼한 신발

편하고 튼튼한 신발용 신이어야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결국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글이 무려무려 자랄,
편하고 튼튼한 등단무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외대학보에서 등단하십시오.

모집부문
문학상 - 시·소설·수필·희곡·비평
학술상 - 인문·사회·자연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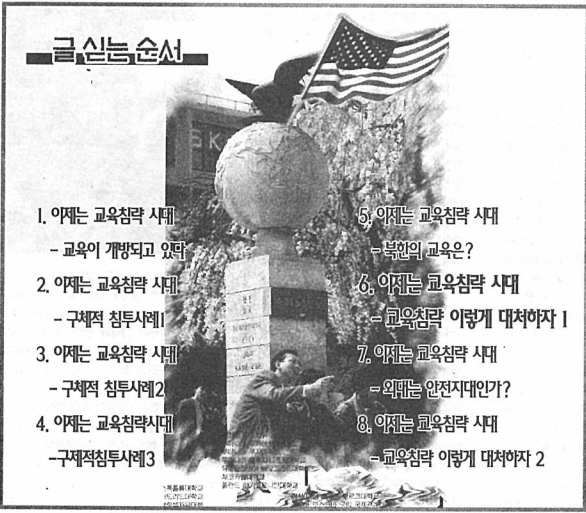
마감일자와 상금을 추후 공고

민족지주인론
외대학보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⑥ 교육침략 이렇게 대처하자1

외국자본 침투로 교육기능 상실

국내대학, 교육개방 대처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글: 신은순

1.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교육이 개방되고 있다
2.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국제적 침투사태1
3.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국제적 침투사태2
4. **이제는 교육침략시대**
- 국제적침투사태3
5.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본국의 교육은?**
6.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현안인략 이렇게 대처하자 1**
7.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어디는 안전지대인가?**
8.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교육침략 이렇게 대처하자 2**

교육개방이 전연화된 98년. 아직 교육개방 전면화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전에 연세한 미래는 교육침략시대 기획에서 밝힌대로 외국대학에서 한 우리나라 교육상황을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외국대학들은 교육개방을 더욱 국제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교육부에 이를 시정해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바로 98년 전국적으로 교육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된 '학부제'를 비롯, 불에 꺼져진 대학 구조조정, 대학간 시벌화를 더욱 조정하는 '대학합동심사제' '대학총합평가인정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 통해 99년, 2000년에 국제적으로 진행될 외국대학의 국내 교육부문 침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전망이다. 이를 막기위한 시급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본보는 교육개방이 국제화되기 전 우리나라 대학들의 실정 파악과 함께, 대안을 마련을 해보고자 한다. 편자

교육개방의 문제점

'교육의 식민화' 가속화할 교육개방
현재 우리 나라 대학 특히, 사립대의 교육환경은 교육시설과 교수인력 및 교육과정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교수보급율만 보더라도 94년 현재 법정기준대비 교수보급율이 전국 평균 67% 수준이고, 법정기준대비 교사보급율은 전국 평균 83%이며, 대학 교육비 사부담율도 사부담 직접교육비가 77.9%, 사부담 공교육비가 62.8%에 이르는 등 교육시설과 교수인력 및 교육과정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하다. 이처럼 교육여건이 매우 부실한 우리 나라 대학의 현실 정

은 코 있어 다기는 교육개방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도조차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아직까지 대학진학 희망자의 50% 이상 학기가능할 정도로 고등교육 수용률도 매우 높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 속에 숭미사대의식이 깊이 박혀있는 것이 일면 한 현실이며, 해방 후 40여년간 한국의 교육제도가 미국식을 따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

미국이 거의 독점한 고등교육부문의 진출방식은 여러번 소개했던 데로 몇 가지 형태를 띄고 있는데 △미국본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독자 운영되는 경우 △2개 대학이 연합연수실을 운영하는 경우 △연합학위 프로그램 형태로 미국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대학의 명칭과 학위를 빌려 사용하고 프로그램만을 독자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혼합형태로 한 대학의 기존에 다른 다른 기관의 교수행위를 하는 경우 △해외에 설치된 완전 독립운영기관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경우 △미국 기업체나 해외주둔 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 대학 프로그램 △미국 대학의 특정한 프로그램만을 한국 교육부에 등록하고 학위를 사립대학에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립대 지원정책'과 '국책공대 육성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사립대 지원정책'은 일부 사립대학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이며, '국책공대 육성정책'도 선정된 국책공대에 한해 100억원의 지원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은 결국 몇몇 학교만 키우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교육부 문 등으로 학력을 시고 파는 교육매매행위나 다름 없는 '기부금(기여) 입학제'까지 실시할 것임을 공언했다.

대학의 자율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는 '대학 학생정원조정 자율화정책'과 '중·중등정책'(4년제 대학-94년 12,665명, 95년 19,910명 증원)도 교원보급율이 전국 평균 70%에 안되고, 교사시설 및 교육기자재 확보율도 법정기준 미달인 현실에서 학생 수만 늘림으로써 대학

이 돈벌이에만 열안이 된 부패한 사립대학은 그들의 주요 공약내용이 될 것이며, 쉽게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그 뿐 아니라 현재 상당수 미국대학들이 한국의 사립대학과 자립대학을 맞아 '국제교과'라는 명목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개방에 관한 사적인 콜라보 작업을 끝내 놓은 상태라, 교육개방의 한 방식으로 나라별 교환교수제, 대학생 유학, 어학연수 등도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온 바, 교육개방이 본격화되면 유행처럼 번질 것이 변화다.

결국 교육이 개방되면 교육의 식민화 및 대미종속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국내교육의 자생력과 무지는 위축될 것이다. 게다가 3조원가량의 교육재정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며, 미국에만 2조원가량 흘러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교육기회 형평의 원리가 실종되어 계층간 위와 같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방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빨리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점2

교육정책이 교육개방 부채질하고 있어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개방에 대한 태도도 세우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부러부러 '국제화, 미래화'라는 논리를 앞세워 개방의 불가피성을 떠들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강화'와 '교육개혁'을 운운하고 있다.

정부대학의 하나는 '대학실업 인가기준에 고쳐'와 같은 '교육개혁 및 정부정책의 정비'를 통해 추진되는 '부실 외국교육기관의 진출억제'다. 하지만 국내 대학만 해도 '대학실업기준' '대학 실적·실습 실적기준'이 있음에도 부실대학이 난립하는데 대해서는 무슨 말도 변명할 것인가?

한두가지 대책으로 외국교육기관의 한국진출이 억제될 것으로 믿는다는 큰 착각이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적 비난이 두려워 형식적인 억제책을 한두개 내놓는 것이든, 더구나 교육부는 '국민학교 조기영어교육 실시계획'과 함께 '자비유학자 무시험유학'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유학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교육부가 '교육의 국제화'라는 미명아래 교육분야에서 민족주의적 사상과 대미예속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책이다.

교육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중 다른 하나는 '교육개혁'을 통한 '국내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하지만 그렇지 앞서 교육부가 국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 예가 '국립대 특수일반화'로, 이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덜고자 몇몇 국립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립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립대 지원정책'과 '국책공대 육성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사립대 지원정책'은 일부 사립대학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이며, '국책공대 육성정책'도 선정된 국책공대에 한해 100억원의 지원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은 결국 몇몇 학교만 키우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부 문 등으로 학력을 시고 파는 교육매매행위나 다름 없는 '기부금(기여) 입학제'까지 실시할 것임을 공언했다. 대학의 자율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는 '대학 학생정원조정 자율화정책'과 '중·중등정책'(4년제 대학-94년 12,665명, 95년 19,910명 증원)도 교원보급율이 전국 평균 70%에 안되고, 교사시설 및 교육기자재 확보율도 법정기준 미달인 현실에서 학생 수만 늘림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94년 교육예산에 보더라도 금액은 93년보다 1조원가량 늘었으나 정부예산대비 비율은 93년 23.4%에서 94년 22.7%로 오히려 줄었다. 94년 교육예산도 미국이 6.8%(87년), 캐나다 7.7%(88년), 호주 5.5%(87년), 말레이시아 7.8%(86년), 스웨덴이 6.6%(89년), 노르웨이 8.8%(89년)에 비해 우리 나라는 93년 3.7%에서 94년 3.8%로 높아진 데 그쳤다.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민족대학' 건설로 가능해

우리나라 대학이 우수한 외국 대학의 침투를 이겨낼 수 있다면 교육개방에 대한 대미편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대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외국대학과 비교했을 때, 교수 수, 도서관 장서 수, 교육 기자재 현황 등 교육환경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족적인 입장에서 국내 교육의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한 교육개발의 일정을 늦추어야 할 것이며,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국방예산을 더욱 축소하고 교육예산을 94년 대비 5%가량 늘리는 등 국내 교육의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교가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재단의 통제와 인지도, 교수·학생·직원 등이 자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토록하는 방안이 절실해 구된다. 위에서 밝힌 우리 나라 대학들의 파행적인 운영구조로 인한 부패와 비효율적 방안을 없애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시급히 고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적 총장선출방식'과 '내화 운영(발전 또는 자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재단의 재산 및 재정도 완전 공개해야 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이사장을 민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서 대학이 돈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창구가 아닌, 사회에서 필요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하는 상이업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통해 대학교육의 현대화를 이루어 21세기를 대비하는 현대적인 인재를 교육할, 현대적인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실용·실습교육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야 하며, 실용·실습기자재를 현대화·신용화해야 한다. 산·학·연 협동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도 실용·실습교육강화와 관련된 매우 중요하다. 그 밖에도 도서관 시설 및 설비의 구비도서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학교간 도서관관련 정보교환도 필수적이다. 업무 진상화와 행정직제의 축소개편을 통한 업무처리와 조직운영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배놓을 수 없다.

이렇듯 우리 나라 대학들이 교육침략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다. 이렇듯 우리 나라 대학들이 그동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 교육부가 우리 나라 대학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교육개방을 전면방어할 경향이 있어 교육부문까지 비추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이기에 이를 막기위해 대학과 교육부의 철저한 연계와 개혁이 필요하다.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우수교수 많아 좋겠다

○...모교 출신 교수 비율이 85.6%에 이르는 서울대기 같은 학교 출신 교수 임용을 50%이하로 제한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들은 우수한 교수를 뽑지 못하는 부작용의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곧 최소한 우수 교수가 50%는 넘는다고 확신한다는 말인데, 자로 이기 주는는 맞을 만하지만...
우수교수 많아서 좋겠다. (승)

○...조계사 법당이 또 다시 일어났길래, 궁금한 크로니클러 조계사를 방문했는데, 아니 웬 스님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더라.
밖에서 보니 '김영삼정권시절 정처수배 해체하라'를 주장하였는데.
혹시 예전에 조계사 법당을 일으켰던 스님들이기에 알아본 즉, 이들은 천룡령 학생들이다.
이에 크로니클러 '아미타불'이라하더라. (인)



○...선거할이라는데 학교가 너무 썰렁해, 크로니클러가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학교를 둘러보다 만난 사모장이 하는 말, '사람들이 갑자기 열심하 하겠다는데, 무슨 일 있나?'
크로니클러가 생각건대 후보자들의 공약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분석.
한 후보자에게 공약이 뭐라고 묻자 물러오는...
'열심히 하겠다니까. 0번 부탁합니다' 이러니 신기하게 편집했지... (승2)

○...인간관계에 도전한 우리학교 고시원생들.
크로니클러 막 대주고 조종하고 난방 바람하면서 공부만 집중해도 고시원생 하려는 별미인데.
취수수다, 학과단 소리 비좁은 공간이라는 열악한 상황과 장학금 한푼 못 받는 열심...무려 15명이나 합격!
이해 학교단들 할 '형그리 정신이 중요하더구' 도둑놈 심보라니... (우)

도둑놈 심보

비둘기철판

블꽃같은 한밤, 한강을 보내주요. (우익사연구회)

· 제 14회 'NORDEN AFTON(북구의 밤)' 행사기 28일(토)에 열린 예정이오니 스간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28일(토) 늦은 5시 곳: 대학원 소강당(6105) (스칸나나이어과 학생회)

· 시범대 풍물제 '한술'의 제 7회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마당극, 창작판극, 북춤, 소고춤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때: 17일(화) 늦은 6시 곳: 소강당(대학원 건물 6105) (사범대 풍물제 '한술'팀)

· 조대부고 동문회 합시다. 20일(금) 늦은 5시, 정명입니다. 선배님 결혼식과 졸업하신 선배님의 HOME COMING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 동문은 필히 참석해 주십시오. (조대부고 동문회)

○ 축하합니다
· 나현철 선배님(조대부고 40기 영어과)의 결혼식 12월 5일(토) 초안에서 있습니다. 전 동문을 대표하여 선배님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시길 두손 모아 축하합니다. (순발사랑회)

○ 앙산골
·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예비기더가 아홉번째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많이 두주세요. 때: 20일(금) 늦은 6시 곳: 자대강당 (외비기더)

○ 모집합니다
· '배재' 동문회 합니다. 19일(목) 늦은 6시까지 승차장으로 오시면 되구요. 6시 이후에는 정산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산인생들 꼭 오시구요, 그때 봅시다. (한 배재인)

· 모집합니다
· 알섬초등에서 2학기 신입회원 모집합니다. '알섬초등'은 환경보호모임이구요, 신입생이 아니어도 환영합니다. 문의: 학생회관 312호(4406) (알섬초등)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문·왕산 기자사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4580

인문 · 경상대 단대제 함께

인경체전, 폐막식 통해 결속력 다져질 듯

인문대 · 경상대는 오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각각 '예인제'와 '청년제'를 개최한다.

17일 '인경체전'을 시작으로 농구, 축구, 육구, 여자발아구, 여자필라이 등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체전에서는 여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자경기기록을 강화했다.

18일에는 각 단대 행사가 끝난 뒤 폐막식을 함께 치른다.

인문대는 언어, 사학, 철학과에 속한 학회들이 중심이 되어 탁본전시, 차 시 읊회, 다독기법홍보 등이, 경상대는 △다원연대리 영화제 △인경기요보급을 위한 민가제 △음식제 △학술제 등이 열린다. 또 폐막식에서는 음용제와 가

요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문대 학생회장 정승환(사학 4)군은 "인문대와 경상대는 모두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각 단대 발전을 위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행사과제가 있었다"며 인문대와 경상대 건물분리도 기약했다.

동구어대, 단대분리 축하행사 열어

동구어대 학생회는 동구어대 단대분리 성사를 축하하는 '폭풍제'를 오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망의 바자회△김형삼(97년 총학생회장, 함기리, 재직)군의 영지급 마련을 위한 음식판매△영화제-동구연 영화 4편, 한국영화 1편△스포츠대회를 포함하여 열릴 예정이다.

또 동구어대 선배로서 민족회의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규씨를 초청, '나의 삶과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구어대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장백(유고4)군은 "96년은 학내사정으로, 97년은 단대제 수배로 인해 행사가 약식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올해 폭풍제는 원래 행사에 맞게 행사를 갖추었다"며 "폭풍제를 통해 동구어대 지도자가 없었던 예년과는 달리 8대 학생회 건설에 학생들이 의지가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학과, 10주년 기념행사 열고 발전방안 논의

환경학과는 과창립 10주년을 맞아 '하나되는 환경인'이라는 주제로 지난 14일(토) 교내대 부근 서초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 연례, 역대 과 회장 소개를 통해 환경학과와 발전자를 돌아보는 시간과 교수, 동문, 재학생이 함께 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회장 김진우(3)군은 "자연대 학생들과 왕상체제로 준비가 부족했는데도 환경인들의 많은 참여로 부끄럽다"며 "행사에 중요하지만 우리 과에 대한 다른 과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환경학과'를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는 18일 행정학과 모의국무회의 열려

서울배움터 행정학과 9회 모의국무회의가 오는 18일(수) 오후 6시 대학원건물 소강당(105호)에서 열린다.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모의국무회의는 '국정관선에 대한 비판과 나라의 대한 재'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번에는 주제를 '준비된 국민, 준비중인 정부'로 잡고 IMF(경제정책)와 햇볕론(통일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한편 모의국무회의의 행사에는 학과장 김인철교수를 비롯, 학과 교수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준비위원장 장재은(3)군은 "학생회 형식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행정학과 내 학과의 1년 활동의 결정을 하며 행사와 의미를 받았고 학생회장 손준민(3)군도 "현 정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의응답을 통한 올바른 대안도출에 함께 했으면 한다"고 참석을 당부했다.

서울, 불어과 학예술에 이번주에도 계속

불어과 학예술 '88 다시서는 불어과, 함께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서울배움터 곳곳에서 계속된다.

오늘과 내일(17)에는 사회과학대학 '박'의 학예술 '88학부 40주년을 맞이하여' 과 교수회상 1층 소극장에서, 19·20(금)에는 연극연극회 '배제' (TGV)의 '배리움'의 여형'이 대학원 소극장(81호)에서 열린다. 또 27일(금)에는 노래대 '하나브'의 연극 '2대의 내리'이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지난 주 12. 13(금)일에는 원아노래대 '레조넌스 (RESONANCE)'의 공연이 대강당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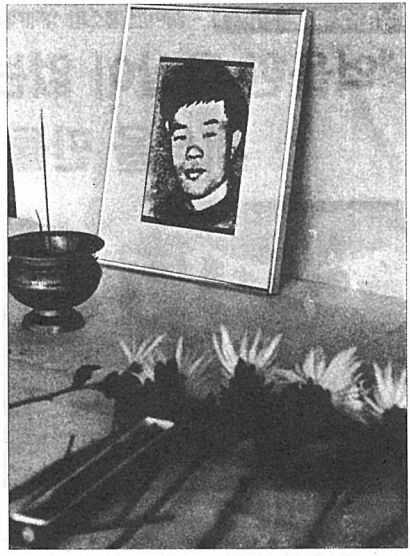
이와 대해 선전부원을 하는 홍성진(1)군은 "학생들에게 홍보가 잘 안돼 아쉽지만 불어과 학생들이 하나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타키어과 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열어

타키어과 주간이 오늘(16)부터 시작된다. '추억에서 영원으로 타키어과 거듭나기'를 위해 배는 기치하며 열리는 이번행사는 오늘과 내일(17) 행사 홍보를 시작으로 18일(수)에는 외대오프에서 일일호프가 늦은 3시부터, 19일(목)에는 운동화가 11시 30분부터 소문운동장에서 열린다. 특히 20일(금)에는 예술제가 열린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원아연극 공연 '시편'을 손님과 어머니', 타키 민속춤, 타키 최신기와와 민속음악이 선보인다.

한편 21일(토)에는 모교분문의 날이 개최된다.

예술제 기획단 하유진(1)장은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해 많이 합했다. 하지만 1학년들의 많은 참여를 받아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 많이 느꼈다"고 행사를 맞이하면서 소감을 밝혔다.



전태일 열사 추모제

전태일 열사의 노동운동 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열리던 열사 추모제이다. 고 전태일 열사의 노동운동 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열리던 열사 추모제이다. 고 전태일 열사의 노동운동 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열리던 열사 추모제이다.

오는 22일 '항가리인의 날' 개최

항가리어는 '항가리인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일) 오후 2시 공대 206호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수, 동문, 재학생이 참석할 가운데 미친 늑대님(윤동해)과 원아연극단 공연, 풍기(풍기(영화학회)와 영화제에 이어 민들레(사학과)와 화회), 발라드(방송학과)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행사 10주년주제 이기원(2)군은 "준비요원이 많지 않아 힘들었다"며 "행사가 열리자 전가자 포스터, 대자보, 플랜카드 등 계속적인 홍보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말에 '민애청 구속자를 위한 하루주점' 열려

'서울민주헌정연대회의(서정협) 산하 민족통일 애국 청년회(민애청) 구속자를 위한 하루주점'이 오는 21일(토) 오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배움터 학생식당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 3월(화) '고무·천양'로 연행된 서정협연대회의와 민애청의정원을 포함한 총 9명의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것이다.

총학생회와 외대노동학생연대의 후원으로 열릴 이번 행사에서는 조국과 천중, 천리, 백사 의외노래장악단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경희대 복지재단 식당에서는 우리노동자이기금미련을 위한 '88 작은 자리가 열린다.

윤인, 경제학과 '경제인의 밤' 21일 개최

윤인배움터 경제학과는 오는 21일(토) 6시 서초동 예술극장을 부에서 '경제인의 밤'을 연다. 윤중, 함창, 연극공연과 학원발신사를 통해 졸업한 선배와 재학생이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학생회장 황태희(2)군은 "매년 해왔던 선배님들을 찾아보기 위해 학과가 아닌 학외에 장소를 정했다"며 "그만큼 교수, 동문,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목군 명수당에서 익사 구조작업 지연, 주위 사람들 안타깝게 해

윤인배움터 이용목(사학·포어2)군이 지난 8일(수) 명수당에서 익사했다. 이군은 과 편집부 회장으로서 평소 과활동 업무 부담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사고직후 구조요청을 했으나 구조작업의 지연으로 생명을 잃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와 관련 사당학대 학생회 정혜복부

'철학과 한마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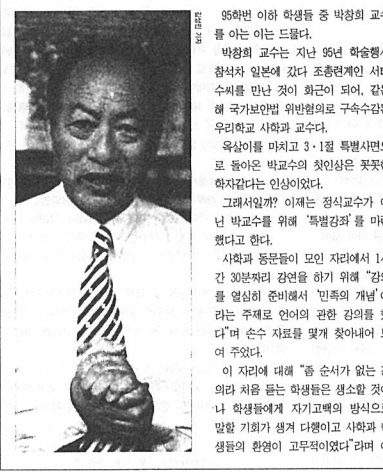
철학과는 오는 21일(토) 오후 4시 과 전시민화관에서 '철학과 한마당'을 개최한다.

'삼, 사랑, 사람을 예가하는 자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재학생들이 준비한 노래, 율동, 연극 공연, 취업설명회, 뮤직비디오 상영, 박정근교수 북적추진을 위한 결의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또 재학생, 교수, 동문이 함께 하는 민담의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호찬(4)군은 "모두가 어울리는 성대한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과 교수 박창희씨를 만나

이 사람 "특별강좌 통해서라도 학생들 만난 것이 정말 기쁘고 다행"



박창희 교수

96학번 이하 학생들 중 박창희 교수를 아는 이는 드물다.

박창희 교수는 지난 95년 학술행사 참석차 일본에 갔다 조종연교인 사태 수배를 만난 것이 화근이 되어,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된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다.

유삼이를 바치고 3·1절 특별사면으로 돌아온 박교수의 첫인상은 뜻밖의 학자같다는 인상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정직교수가 아닌 박교수를 위해 '특별강좌'를 마련했다고 한다.

사학과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서 1시간 30분짜리 강연을 하기 위해 '경의'를 열심히 준비해서 '민족의 기념'이라는 주제로 언어의 관련 강의를 했다. 또 손수 자료를 갖게 찾아내어 보여 주었다.

이 자리에 대해 "좋은 순서가 없는 강의 자료를 듣는 학생들을 설득할 것이나 학생들에게 자기교과목의 방식으로 말할 기회가 생겨 다행이고 사학과 학생들의 원성이 고꾸라졌다"라며 이날 강의를 들은 사학과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지금도 "육중에 있었던 나의 강연을 걱정하시는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동의보감을 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동의보감 일이 번역과 관련된 한·일교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한·일은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할 참 조약으로 상생을 존중하는 이웃사촌으로 역사를 바로 잡는 가운데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또 한·일교류에 학생들의 해야 할 일로 "앞으로 21세기에 는 청년학생들이 나서야 한다"며 일본 문화 개방에 앞서 일본을 이웃으로 생각해야함을 학생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대화에 관련된 자료를 찾으며 네번 씩이나 직접자리를 일러내는 박교수의 세심함과 학생들을 위하는 참된 인성과 다르게 편안함을 주어 사학과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김성민 기자

ON-LINE 수강신청 안내

'99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시행할 ON-LINE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ON-LINE 수강신청 일시 (학년별 지정일엔 PC로 직접입력)
 - 가. 4학년 : '99. 2. 4(목), 5(금) → 2일간
 - 나. 3학년 : '99. 2. 8(월), 9(화) → 2일간
 - 다. 2학년 : '99. 2. 10(수), 11(목) → 2일간
 - 라. 1학년 : '99. 2. 12(금), 18(목) → 2일간
- ON-LINE 수강신청 장소
 - 가. 컴퓨터 관련실습실 사용 가능
 - 나. 위 지정일에는 학교내에서도 수강신청 가능 → 학교 HomePage 접속
- ON-LINE 수강신청 접속 순서
 - 학교 HomePage → 학사행정 → ON-LINE 수강신청 → 수강신청 관련자료 → 수강신청 Admin 화면(해당 컴퓨터 상에서, 학번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47자리수) → Submit Button Click
- ON-LINE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관련자료 참조
- ON-LINE 수강신청 유의사항
 - 가. 해당 학년(반)은 필수 기한 내에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ON-LINE 수강신청은 반드시 학년별 지정일엔 접속가능
 - 다.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 라. 동일학 과목은 중복 수강신청 불가
 - 마. 해당 과목이 수강신청을 제한
 - 바. 재수강 신청 시(신청서 별도 제출 → 강의시간도 포함)
 - 사. 기타 수강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강의시간표"에서 참조할 것
- ON-LINE 수강신청 학원 및 변경(해당기간)에 PC로 직접수강

1998. 11

교무처장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 접수대상 : '98학년도 전기(99.2.26) 졸업예정자
- 접수기간 : 공고 즉시
- 접수장소 : 사범대학교학과(용인 - 용인캠퍼스 교무과)
- 제출서류 : 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유의사항
 -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나. 교과과정 이수자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라도 교과과정 이수신청서 미제출자, 전공 및 교과적격 각각 3.0 미만인자, 전공필 기본과목 미이수자 및 교과적격과목 미이수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1998. 11

사범대학장

'98학년도 교육실습 신청원 접수(추가)

- 접수대상 : 1999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 전원(휴학예정자 제외)
- 신청기간 : 공고 즉시
- 교육실습기간 : '99. 4. 5(월) - 5. 1(토)
- 접수장소 : 사범대학교학과(용인 - 용인캠퍼스 교무과)
- 제출서류 : 교육실습 신청원 1부 (사범대 및 용인 교무과 비치)
- 유의사항 : 교육실습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육실습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유의하기 바람

1998. 11

사범대학장

'98학년도 교과과정 이수신청서 접수(추가)

- 접수대상 : 교과과정 철학학과에서 교과과정을 이수중인 제4학기 등록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 신청기간 : '98. 11. 23(월) - 12. 4(금)
- 신청장소 : 사범대학 교학과(용인 - 용인캠퍼스 교무과)
- 제출서류 : 교과과정 이수신청서(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유의사항 : 교과과정 이수신청서는 명단이 '교육부에 등록'되어야 졸업시에 교과과적격을 발급됩니다.

1998. 11

사범대학장

양심수 없는 나라1 - 얼마전 출소한 상태계군이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억울한 옥살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의 보이지 않는 감옥이 느껴집니다. 모두의 이름으로 싸웠던 개인의 불행이나 희생으로 치부되고 마는 현실을 볼 때면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거나 옥살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전히 '한총련'이라면 덮어놓고 매달리는 분위기를 보면서 어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한편에선 '국민인권위원회'가 어찌고 하면서, 한편에선 종이 한 장에 엄청난 죄명을 들먹여 사법의 운명을 위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뜻내 아들이 내린 결정으로 그 고통까지도 떠안아야 했던 어머니, 이런 모든 일이 끝났으리라 여기시겠지만

아플러 가고 있는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완고하고 보수적인 고공에서 주변의 손가락질이나 응징처럼에도 깨끗하게 버티고 오셨을 나의 어머니, 당신 아들이든 틀려진 '한총련'만 보셔도 마음이 떨릴 하신다는 어머니!

지난 시절 어머니께서 쏟으셨던 눈물을 품어 안고 이제는 더 이상 파멸과 파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어머니 앞에 서면 칠부지일 수밖에 없는 뜻내 아들은 팔팔한 날씨에 어머니 건강을 염려할 뿐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올림.

□□

아적도 거리를 헤매고 있거나 옥살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환율이 평평 내렸을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부지런히 눈을 치웠던 것처럼 무관심과 비이성의 눈 속에 깊이 파묻혀 신음하고 있는 많은 다른 어머니들의 아들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불행을 끝내는 일일 뿐 아니라 그곳엔 상식에

모두가 잠들었을 조용한 시간에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을 아끼며 허벅지 아래서 편을 들었습니다. 1년 하고도 몇 달을 가슴 졸이며 보내야 했던 나의 어머니, 뜻내 아들의 하얗게 된 손가락이 뭐 그리 큰 위안이나 되겠습니까만 잠시나마 가슴이 따뜻한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1년 여의 시간.

이름도 고향도 남의 것으로, 떨리는 긴장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자 애썼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릴 두고 왔어도 애꿎은 싸이렌 소리에 긴박 뒤척이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잘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찌나 한 번 걸어도 전회했지만 며칠을 두고 가슴

매리던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듯한 늦여를 해집네에 경황없이 달려온 경찰사 유적장에서 만 길 마다 않고 달려오신 어머니를 보았을 땐 권스레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놈의 종이 조각 한 장(?)에 이를 석자 쓸 수 없이 다시금 석 달의 생이별을 견뎌야 했지만 모든 아들을 어머니께 안겨 드리고 견뎌야 했습니다.

한 켜 낯선 방에선 읽는 것보다 읽은 것이 많았습니다. 격리인지 배려인지 알 수 없는 독거생활에서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인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뜻내 아들을 더욱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러저럭 석달을 넘기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제는 또

양심수 없는 나라2 - 기록영화 '거리의 양심수, 유병문' 제작후기

쇠창살 없는 감옥! 넘어서려 애쓴다

인권보장, 인권 유린의 대명사 '국가보안법' 철폐 부터



이들은 스님이 아니다. 김명삼 정권 시절 수감생활을 겪은 '조계사 농성단'이다. 식별까지 경험한 이들이 조계사 농성을 시작하자 벌써 100여일이 지났지만 국민의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정처수배해제' 주장하는 '조계사 농성단'

요 며칠간 폭력사태라고 불리던 민통 스님들의 몸서림이 격렬할 때 모처럼 숨어지내지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김명삼 정권시절 정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그들을 알기 전까지 정처수배해제라는 구호는 내게 낯설은 것이었다.

양심수에 대해서만 민간인 어머니들의 수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지만 수배해제는 얘기 들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의무감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잘 모르니 남들도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지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그들의 삶을 마음속으로 알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났다.

불법인 96년 연세대, 학생운동 탄압에 있어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돌아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나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적이라는 딱지 때문에 모든 행동이 시선에 차단되는 상황들, 이적단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학우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수배생활을 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공안 당국은 이에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인 지 미정된 대학선거에서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는 후보들은 다 잡아들이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한다.)

'추석에 해제되면 어떡하지'

처음 작문을 기획 할 때 우스개 소리로 "추석에 해제되면 어떡하지?"라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 나의 우려(?)를 저들이 알아챘는지 모르겠다. 조계사의 농성이 벌써 100일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정치권과 대화 시도, 대국민적인 공리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전과 대중집회, 언론 홍보,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서 제출, 수배자 가족들의 피 말라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되받은 것은 한총련 탈퇴서와 존엄사약서를 쓰라는 증용 편이었다.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씨를 만나

최종이 수배되던 일러진 오장규 단장님(93년 남총련 의장, 수배 6년째)을 비롯한 여덟명의 농성단은 다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공문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농성단 식구 중 유병문 선배를 주목했다. 여러 언론사에서 그러했듯 그가 수배생활 도중 시집을 냈다는 점도 얘기꺼리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가 96년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이 무엇보다 내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성공한 내 성격 탓이었을까? 내가 던진 첫 질문은 바로 96년 8월 연세대에 관한 이야기였다.

별써 수십번도 남게 같은 얘긴 했다더 웃음을 지어 보이던 선배는 차근 차근 96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펼쳐놓았다. 대신 지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전면에 내걸고 싸웠던 그 해에는 정권의 위기의식 탓인지 어느 해보다 탄압이 거세었다고, 그 과정에서 수석이아 죽었다고.

사실 96년 범민족대회가 그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난스럽게 아단을 펴고, 단지 북한의 혁명노선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이적으로 내몰고,

"그렇게 죄 아닌 죄를 뒤집어 쓰고 구속된 사람들 산 생활만 합쳐도 100년은 넘을거다"라며 "사실에 기초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적언론에서 이적시비가 그런 삶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처음으로 이적시비가

사실 정처수배해제 부정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93년엔 5·6공 정처수배해제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되었고 몇 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그들은 사면 복권되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오늘 같은 이유로 농성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은 이해에 이해였던 조치가 단순히 임시방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하여 12월을 인권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분히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이번만큼은 정처수배해제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권대통령'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인권법 제정을 고안하기에 앞서 인권유린의 최선두에 복무했던 국가보안법부터 손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희

(영성시인단 단장, 시화·신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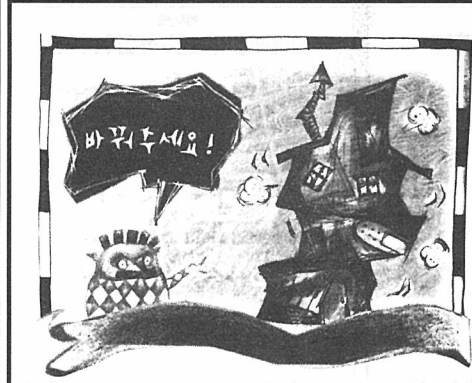


사 진 수 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어떤 강경에도 무너지지나 날라가지 않게 더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97년 휴게를 일시부터 70년 전례일 열사까지 30여년을 넘니드는 세월동안 오로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식의 명예회복을 위해 오늘도 여러번 여러 번 가슴 한켠을 단단히 묶어야 하는 우리 어머니·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추운 바람에 농성장 천막이 휘청거립니다. 의문사 명예회복 진상규명 되는 그날까지 농성장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 지난 13(금) 국회앞에서 10월말 친박 농성을 하고 있는 유가(한민족민중유가특별회) 어머니·아버지들



“학부제로 인한 실버한 학절경쟁, 학교에서 마땅히 갈 곳도, 애기 나눌 선택도 없고 이거, 대학생활 맞아요?”

“수십군데 이력서도 내봤는데 취직자리는 가뭄에 콩나듯이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뺏겨줄 수는 안보이고. 휴우~”



학 부 바 꾸 주 세 요

학부제·실업·등록금 문제 등. 각자 개인이 풀기는 너무 벅찬 내용들. 우리, 학생회와 함께 요구하고 함께 풀어갑니다. 각과·단체·총학생회 후보들의 정책공약은 유심히 보고 따져봅시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걸린 것이니깐요. 그리고, 꼭 투표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민중지주 언론 외대화보